

宗主國跆拳道

1976년도 어느덧 半이 지났읍니다.

2千年 歷史의跆拳道가 現代競技種目으로 發展되는 基礎를 確立한 것이 지난 5年餘의 結實이었다면 1976年은 確立된 基礎위에 우리의 높고 雄大한 計劃을 쌓아 올리는 『第2의 始發點』인 것입니다.

우선 금년 4월 10일跆拳道는 서울에서 열린 國際軍人體育會(CISM)執行委員會에서 CISM의 23번째 正式種目으로 채택되었읍니다.

CISM은 60개 會員國을 갖인 國際軍人體育會로서, CISM의跆拳道種目 採擇은 우리가 이미 作年度에 거둔 GAIF加入과 월드컵의 티켓외에 성취한 또 하나의 勝利라 하겠읍니다.

금년에는 또한 서울에 本部를 둔 世界跆拳道聯盟의 산하 大陸別 地域機構 組織의 序幕이 열렸읍니다. 즉 지난 5월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럽會員國 12個國이 參加한 가운데 유럽跆拳道聯盟이 創設되었읍니다.

同時에 그곳에서는 海外에서는 처음으로 되는 第3回國際審判강습회가 世界跆拳道聯盟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第一回 유럽跆拳道選手權大會도 盛大히 開催되었읍니다.

跆拳道의 大陸別 地域機構의 結成과 強化는 유럽이외에 아시아, 北美, 中南美, 아프리카등에서도 계속될 것이며 특히 금년 가을에는 10월 16~17일 호주 멜버른에서 第2回 아시아跆拳道選手

道 人 의 使 命

세계태권도 연맹 총재 김 윤 용
대한태권도 협회 회장

權大會 및 第4回 國際審判 강습회가 열립니다.

그외에도 내년에 있을 第3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를 앞두고 금년 여름에는 全美跆拳道夏期세미나가 計劃되고 있으며 跆拳道의 國際的 擴散과 發展은 加速一路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같은 跆拳道發展을 위한 第2의 始發點에서 宗主國 跆拳道人들에게는 보다 큰 使命感和 精神姿勢의 再整備가 要請됨은 勿論입니다.

보다 科學的인 技術의 研究開發, 名實相符한 宗主國의 主導權 強化, 弘報活動의 強化와 行政組織의 改善, 等 跆拳道가 다른 西歐 現代스포츠와 本格的으로 競合하게 됨에 따라 우리가 완수해야할 課題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對內的으로 大韓跆拳道協會 산하 9개館이 지난 5월 20일 서로 다른 館명칭을 폐지한 것은 바로 이러한 宗主國 『跆拳道人의 總和 團結』의 굳은 意志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本人은 앞으로 남은 1976年の 半이 跆拳道 『歷史의 第2의 章』을 펼침에 있어 보다 보람되고 알찬 前進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0萬 跆拳道人은 跆拳道의 國技化와 世界化에 이어 스포츠外交를 통한 國威宣揚과 힘을 기르는 總和前道에서 나라를 지키는 護國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使命을 다시한번 굳게 다짐하기 바랍니다.

Let Us All

On 10 April, CISM Executive Council adopted Taekwondo as its 23rd official sport. CISM is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with 60 member nations, and the inclusion of Taekwondo as its official sport with its 1st CISM Taekwondo Championships slated for 1978 is significant. It is another step forward from last year's progress through affiliation as member of GAIF and inclusion in World Games I.

The European Taekwondo Union, the first continental union under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as formed with the participation of 12 national federations on 21 May in Barcelona before the opening of the 1st European Taekwondo Championships. This is to be followed by another continental union in Asia, when the 2nd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takes place in Melbourne, Australia on 16—17 October. Two international referee seminars and one technical seminar in USA are scheduled this year.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has abolished all particular name of

Move Together

“Gwan or Kwan” but instead named all Gwans in numerical order, 1st through 9th Gwan. And all these moves are to pursue our objectives of making Taekwondo a great sport of the world.

I like to ask all instructors and leadership in Taekwondo to bear in mind our objective is to make Taekwondo a beloved sport of the world and we have long way ahead. I like to ask all students that learning of Taekwondo is not merely to learn superb technique of Taekwondo and to acquire certificate, but to become a good human being for family, society and country at its call. Let us all move together.

Un Yong KIM

President

**World Taekwondo Federation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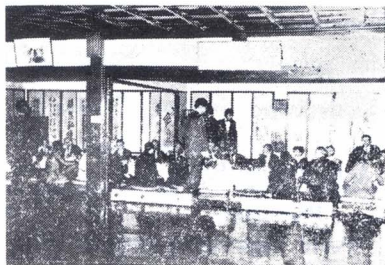
태권도/국제군인체육경기종목으로 채택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76년도 국제군인체육회(C.I.S.M) 제 1차 집행위원회의에서는 태권도를 국제군인체육 경기종목으로 정식 채택했다.

4월10일 오후 국제군인체육회 제 1차집행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년 10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1976년도 총회에서는 경기운영및 제반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78년에는 제 1회 국제군인태권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이보다 앞서 14개국에서 참가한 20명의 대표들은 국기원을 방문 한국성인 시범단과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시범단이 보여주는 태권도연무시범을 관람하였는데 강한 힘과 정확성을 보여주는 태권도의 묘기보다는 경기로서의 태권도 모습을 보여줄수있도록 76년도신인선수권대회의 입상자들이 실제 경기내용과 같이 심판원까지 동원된 경기시범을 보여주었다.

시범이 끝나자 알도 마사리니국제군인 체육회회장은 시범을 보곤한 소감을 「이렇게 훌륭한 태권도연무시범을 보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태권도가 신체의 연마뿐만 아니라 정신적 교육에도 필요한 것으로 특히 軍에 필요한것을 느꼈다」며 동양의 이러한 훌륭한 무도를 서양의 청소년들은 본받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KOREA HOUSE 에서 열린 만찬회)

무에 대해 물렌트사루총장과 증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만찬회에는 김평희 유정회국회의원도 참석하여 이들 대표들과 함께 환담하였으며 만찬이 끝나후 한국고전무용을 20여분간 관람했다.

국제군인체육회는 1948년에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66개국의 회원국과 앞으로 가입및 초청대상국이 30개국으로 가히 군인체육회의 올림픽위원회라고 볼수있는데 한국은 1957년에 가입한 이래 매년 선수단을 파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한국군의 우수성과 국위선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

이자리에서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총재는 각국 대표들에게 태권도 명예단장과 국기원 명예회원증을 일일이 수여하였으며 수행원들에게도 태권도지, 팔프렛, 기념메달들을 수여했다.

이보다 앞서 4월 8일 오후 7시에는 김운용총재가 베푸는 만찬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베풀어졌는데 이날 만찬회에는 14개국의 20명의 대표와 한국측의 대표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김운용총재는 태권도의 역사와 오늘날세상으로 떨어진 본토등에 관하여 각국의 대표들과 환담하였으며 7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경기연맹(G.A.I.F)에 가입된 태권도의 배경

으며 현재의 사무총국은 벨기에의 수도 브르셀에 두고있다.

76년 제 1차 집행위원회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경기종목은 모두 26개 종목에 이르렀는데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장 큰 활력소는 국제경기연맹에 가입된 공인스포츠라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때 우리 모든 태권도인들은 국제기구에 가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다른 동양 무술에 끝없는 도전과 방해공작에서 좀 더 초연한 자세로 지속적인 노력과 경주를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C.I.S.M ADOPT TAEKWONDO

The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CISM) will officially introduce Taekwondo in its 1978 event. The decision to adopt Taekwondo as its 23rd sport was made by the CISM executive committee, which was held from 7th to 9th, April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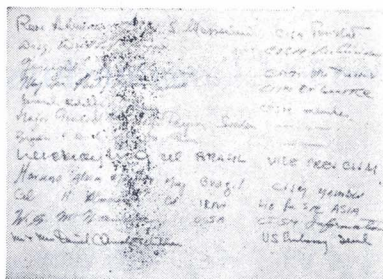
The CISM with 65 member nations is also a member of the General Assembly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GAIF) in which Taekwondo gained admission last year.

CISM Secretary General Raoul Mollet of Belgium said that Taekwondo would become one of the CISM events by at least 1978 and that such decision would pave the way for Taekwondo to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international sports.

He hoped that a clinic on Taekwondo would be given annually, pointing out that the self-defense martial art is rapidly spreading in Europe a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ome 20 executive committee members of the CISM, who had attended the meeting, observed a Taekwondo demonstration at Kukkiwon, the world Taekwondo center in Seoul. Visit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s from 14 countries were all smiles and clapped warmly at the well-trained 30 primary school boys and girls' eye-catching techniques.

After reviewing the demonstration, the CISM executive committee members received honorary Taekwondo black belts and honorary membership cards of Kukkiwon from Un Yong Kim, President of the WTF.



(각국의 대표들이 국기원 방명록에 남기고간 서명)

유럽 태권도 연맹창설 Europe Taekwondo Union Foundation

76년 5월 21일 10시 30분 스페인 바르세로나市的 룽그레스홀에서 유럽태권도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주최국인 스페인을 비롯 벨지움, 오스트리아, 폴투갈, 서독, 이태리,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터키, 덴마크, 그리스등 13개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유럽태권도연맹 결성은 세계태권도 연맹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입각한 세계스포츠로서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좋은 결과」라고 이들 대표들은 격려하고 「그러나 세계태권도연맹을 모체로 한 선의의 토론은 바람직하나 조직을 무시하는 개인적인 행위는 일체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거행된 임원선출에는 안토니오 스페인 태권도협회장과 치아트·우스칸터키 태권도협회장이 경합하였으나 6:5로 안토니오회장이 유럽태권도연맹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사무총장선

출에 있어서는 스페인의 올림픽 위원이며 카스 델라주태권도회장인 마르코스씨가 독일의 하인즈·막스씨와 경합 역시 6:5로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부회장선출에는 제이 메르구트(프랑스)를 비롯 제이·던덴훗(네델란드), 소벤슨(덴마크)씨와 치아트, 우스칸(터키), 그리고 한국의 태권도사범인 박선재(이태리)씨가 각각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기술분과위원장에는 이경명(오스트리아)사범이 선임되었다.

임원선출이 끝나다음 토의안건에서 제 2회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를 1978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중해연안경기 대회(MEDITERANEAN GAME)에도 태권도를 공식종목으로 포함할것을 스페인의 국제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인 사마란치씨가 유럽태권도연맹에 통보하프로서 유럽태권도연맹에서는 지중해연안경기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회 유럽태권도 선수권대회

The 1st European Taekwondo Championships

제 1 회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가 스페인의 바르세로나에서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유럽 12개국 선수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하에 2번째로 개최된 지역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주최국인 스페인을 비롯 터키 그리스 프랑스, 영국, 덴마크, 서독, 이태리, 벨지움, 오스트리아, 폴투갈 이참가하였다.

경기방법은 올림픽경기방법과 동일한 메달 획득순위에 따라 종합순위가 결정되었는데 금메달 획득순위는 독일 3, 네델란드 2, 스페인 1, 터키 1, 영국이 1를 차지하였다.

경기와 함께 대회기간중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벌어졌는데 23일 오후에는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총재가 베푸는 오찬에서 각국협회장과 함께 유럽태권도 장래는 물론 세계태권도현황 및 앞

날에 관한 진지한 대화 의광 장을 마련하였으며 국제친선우의를 돈독히 하였다.

이보다 앞서 21일에는 스페인의 주최자인 바르세로나市長이 베푸는 리셉션이 열렸는데 김운용총재를 비롯 각국의 협회장과 대회임원들이 참석하여 태권도 발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하였

다. 또한 23일 대회를 마친후 김운용총재는 구라파지역 한국사범 80명과 자리를 같이하며 격의없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며 태권도의 진로는 물론 해외사범으로서의 자세,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에 대한 장시간의 훈시와 토론을 하였다.

제 3 회 국제태권도 심판강습회

The 3rd International Referee Seminar

세계태권도연맹 주최로열린 제 3회국제태권도 심판강습회가 제 1회유럽태권도대회가 개최되는 스페인 바르세로나에서 대회에 앞서 19일, 20일 양일간 12개국에서 73명이 참가 교육이 실시되었다.

구라파주재 한국사범들을 비롯 그 곳의 많은

외국인지도자들도 참가한 이번 교육에는 태권도의 경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규정의 숙지및 심판교육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처음으로 종주국을 떠난 국제심판강습회로 짧은 기간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 문 제 점 □

유럽연맹 창립이면에는 독일과 스페인간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갖가지 분쟁이 있었으나 세계태권도연맹의 강력한 지도력과 현지 사범들의 노력으로 사전에 수습, 세계태권도연맹의 산하로는 처음 대륙연맹결성을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연맹으로서 발전시키는데는 세계태권도 연맹의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는 물론 현지 사범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범

들의 애로사항을 정부는 물론 현지 공관의 입체적인 지원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한국스포츠외교가 지향하는 동구공산권 및 비동맹국가와의 스포츠교류의 전망을 놓고 볼때 도 비단 태권도세계화란 명제뿐아니라 한국스포츠가 국제스포츠사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향한우리 모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없이 모든 태권도 인들이 분투 노력해야할것이다.



각종교육 현황리에 열려

TaeKwondo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s

제1기 2급 심판강습회, 제16기, 17기 지도자 교육

1976년은跆拳道의 國際的인 行事가 宗主國을 떠난 餘他國家에서 開催되고 있어 跆拳道 世界土着化에 새로운 轉換點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國內의으로도 一線指導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強化로 跆拳道 내일을 위한 基礎作業으로서 楚石이 되는 指導者教育은 물론, 審判講習會, 外國人指導師範士養教育 등으로 扎实히 內實을 다져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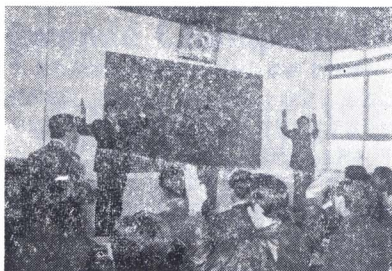
특히 指導者教育은 回를 거듭할 수록 教育의 內容이 알차든 물론 權威를 더해가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제한으로 많은 一線指導者들이 참가치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각 교육에서 합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기 2급 심판합격자(3월 18일~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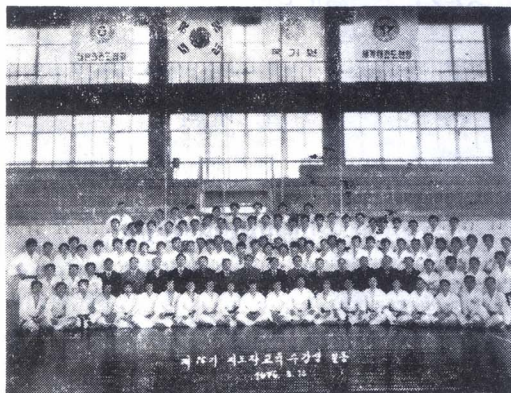
이준호	이규정	이길재	김호재	정단순
정병규	김강인	전정웅	박대순	박성홍
손향성	이재욱	김우경	김태용	元尙郁
정구중	許 用	배주식	趙潤泰	辛在度
金錫浩	安英澤	金大成	成百奎	金福然
鄭吉雄	손석진	노상석	吳龍均	金正仁
張萬榮	吳富雄	任文奎	하중덕	이완기
고봉준	조성일	曹增德	元天喜	朴龍鐸
金興洙	李泰成	박태현	高國煥	윤성희
임학선	安鍾雄	김태운	곽병오	김대연
정익진	권경옥	李長福	金在基	고운삼
서익수	오찬석	崔五榮	韓英敎	朴玩奎
張基昇	劉巖俊	陳德英	전영근	金容瑞
林順浩	김건환	김 준	印環煥	具鍾基

崔淸大	林政源	임재복	정갑순	이병출
禹濟林	박정식	이상달	박부권	문무용
김종선	김태진			



(심판규정을 교육받고 있는 수련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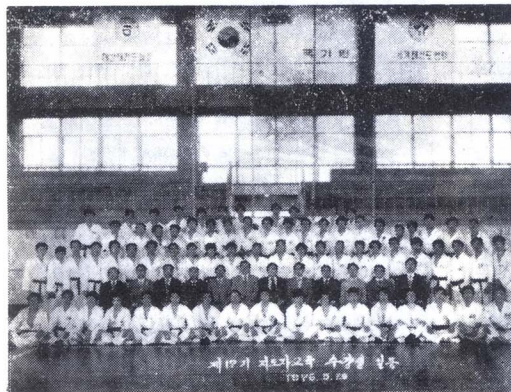
제16기 지도자교육합격자 (3월 8일~13일)



김길용	강진원	이인경	김봉언
강석기	이영학	손천길	연철호
김호기	노달선	유금춘	강동준
정창년	한정수	이수원	김창균
김덕상	정운영	신동식	박인일
송선태	위철양	남강희	서명기
김갑용	김윤재	이근식	최영하
현활수	이상완	서재남	장재식
노영일	손태수	오수곤	김영필
김고공	문영배	박영국	이종관
김영득	석시용	강문형	오승철
한윤동	이종환	김기태	김효정
신범승	김명덕	김형천	김복식
최순환	최형묵	황운석	최병선
백운도	백운채	김경찬	박창선
김정재	최재무	이종찬	전동욱
이철수	김봉학	신용섭	이승인
박금용	양주현	김운태	채희인
남효정	허영	오동택	변영욱
			정태경

임병일	신인식	백혁기	조성만	김관진
김득권	박경춘	안광준	채규성	박치영
오용진	김종훈	김응식	오준영	정세환
오세명	조은연	박연환	박종완	장희봉
곽재영	김우경	김명환	장용갑	김광성

제17기 지도자교육 합격자(5월 24일~29일)



金英一	吳永福	현창환	李宗確	李完榮
張在羽	朴泰丙	李相哲	趙泰鉉	金輝熱
柳百萬	鄭元甲	金明熙	李南昊	張淳德
李海國	李成鎬	金在九	鄭寒源	정영택
金敬洙	김태경	印求顯	박영희	정진석
임채환	金炯坤	은상기	安秉直	朴英來
徐光植	李昌揆	李秉泰	曹大成	盧壽吉
崔富吉	朴明淳	朴熙榮	許英一	申判洙
羅璵烈	俞炳浩	全萬植	임창묵	洪在學
박창길	李熙元	崔煥汶	박원식	김문도
이석홍	오병석	한광희	오홍근	김성학
김성규	남상덕	김창호	신해용	박선용
林實淳	김종근	金永泰	정종호	전진웅
안승만	임재학	원공식	이종수	김은배
김정곤	장신민			

대통령하사기 생탈

제11회 전국단체 대항 태권도 대회

The 11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성동상전 고등부에서 2연패.....

.....일반부 육군 A팀 종합우승.....

11번째를 맞는 대통령하사기생탈 제11회 전국 단체대항태권도대회가 76년 6월 10일부터 12일 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년에 이어 한국방송공사가 특별후원을 하였다.

72년 6회대회 이후 국제대회로 인해 다소 침체하였던 국내의 최대의 대회인 이번 대회는 참가팀에서부터 전년에 비해 무려 두배가 되는 일반부 23개팀, 고등부 27개팀이 출전을 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참가팀들을 보면 일반부에서 연세대를 비롯한 7개 대학교와 4개의 군팀, 13개의 일반도장팀들의 참가는 전년에 비해 일반도장팀이 11개팀이 증가한 것이 괄목할만하나 이중 실업팀으로 동양신약, 대룡금속, 회계법인 등의 참가는 태권도경기에 첫 실업팀의 참가라는 가장 큰 수확이라 하겠다.

고등부에서도 전국의 고른 분포를 보이며 제주도의 오현고등학교를 비롯 전북의 만경고등학교 등 27개교가 참가한 것은 명실상부한 전국



(김종구대회장의 개회사를
대독하는 林森 부대회장)

대회로서 권위를 다하고 있다.

경기는 개인토너먼트식으로 체급별입상자의 메달획득수에 따라 종합전적을 평가하며 대진표 추첨에서부터 비상한 관심을 갖고 경기에 임하였다.

6월 10일 첫날 오후 2시 개회식에서 대회장인 김종구서울신문사사장을 대리하여 林森전무이사인 개회사를 통해 『높은 기술과 힘으로 이번 태권도대회를 빛내고 특히 국민총화와 안보태세에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기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대회기간중 선전분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명예대회장인 김운용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태권도국기화와 세계화에 노력하는 태권도인이 되자』고 당부하며 『우리의 현시점을 볼 때

태권도를 통한 국위선양 및 호국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태권도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식(육군 A팀)선수의 대표선수 선서에 이어 작년도 우승팀인 동아대학교와 성동상전의 우승기 반환이 있는 다음 20여분간에 걸쳐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의 연무시범으로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경기가 속행되었는데 이날 개회식에는 袁國徵자유중국태권도협회장이 이번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방한하여 대회의 권위를 한층 더 했다.

이날 경기는 개회식에 앞서 오전10시부터 예선전을 가졌는데 팽팽한 경기에 연속은 마치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접전으로 이어져 나갔다.

모처럼 초여름의 국기원은 2,000여 관중이 운집하여 저마다 소속팀의 명예를 걸고 분투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도 장관을 이루었는데 단채로 응원단을 참가시킨 전년도 고등부 우승팀인 성동상전은 부라우스 밴드까지 동원한 질서있는 응원으로도 한 몫을 보았는데 남산공전도 이에 뒤질세라 치열한 응원전으로 맞서 관중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각급 팀들도 이에 맞서 필승이라는 프



(개회식에서 袁國徵自由中國 跆拳道協會長이 관전하고 있다)

랑카드를 경기장에 내걸고 산발적으로 열린 응원전을 벌였다.

오후 7시까지 거행된 첫날 경기에서는 뚜렷하게 실력의 차를 보인 두드러진 선수는 없었으나 각 팀에서는 대체로 예상하였던 선수들이 예선전을 통과한 것으로 내일의 대전에 임하는 작전에 몰두하였다.



(김정식(육군 A) 선수의 대표선수 선서)



(옆차기로 득점을 올리는 순간)

혼전만을 거둬하는 열전의 연속

2일째인 11일에도 오전 10시부터 경기가 속행되었는데 각팀의 코치들은 대진표를 놓고 상대 선수의 전력탐색에 열을 올렸다. 이날 학생부경기에서는 라이트급 준준결승까지를 일반부에서는 헤비급 준준결승까지를 마쳤으며 학생부는 고른 본포로 준결승권을 획득하였는데 전년도 우승팀인 성동상전이 6체급을 서울체육고등학교가 4체급으로 뒤쫓고 있으며 남산공전, 풍생고, 만경고등이 3체급을 진출시켜 중위구름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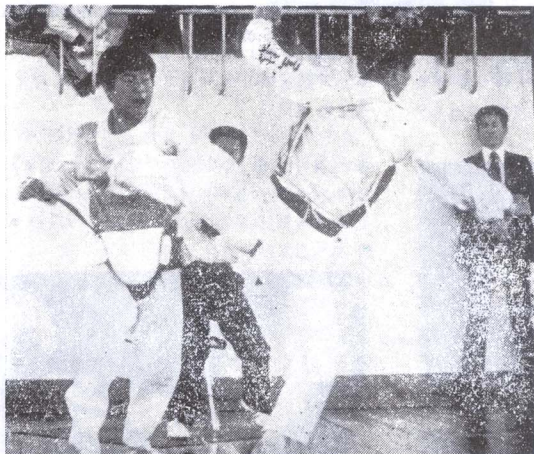
이날의 개인경기에서는 백중의 실력차로 준준결승진출까지 두려 35게임이 무승부를 기록하는 혼전을 벌였는데 최기권(만경고)선수를 맞은 이평우(서울체육고) 선수가 2회전 중반에 뒤돌려차기로 최선수에 복부를 강타 KO승을 거두었다.

일반부에서는 전년도 우승팀인 윤창욱 선수가 유일하게 준결승전에 진출하여 동아대학교의 2연패의 꿈은 일단 부레이크가 걸렸고 명지대학

이 3체급을 진출시켜 우승을 향한 문턱으로 한걸음 닦아섰으며 성균관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2체급씩을 진출시켜 막판 치열하게 팽팽한 대결을 앞두고 있었으며 연세대학교가 외로이 1체급을 진출시켜 영패를 모면하였고 인천체육전문학교와 국민대학이 모두 탈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군팀이 장세를 보여 육군 A팀이 6체급을 육군 B팀이 3체급과 해군팀이 2체급을 진출시키고 있으나 어느 팀도 우승을 낙관할 수 없는 팽팽한 대결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도 관람석에는 열띤 경기와 함께 응원전으로도 팽팽한 대결을 보였는데 전날의 성



(발들어 내려찍기를 피해 주먹지르기를 시도 득점을 노렸으나 라인 밖으로 나가 무효가 되었다)

하고 있으나 동대문상고, 청주농고 등이 2체급을 진출시키고 있어 만만치 않은 혼전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성일고, 만경고, 광운전자, 전주해성, 대성고, 중동공전, 제주 오현고, 용산공고 등이 한체급씩을 진출시키고 있으나 결승전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이들의 상위입상도 가능케 하여 쉽게 우승을 판가름할 수 없는 내일의 열전이 예상된다.

동상전과 남산공전은 엇비슷한 응원동원과 밴드까지도 똑같이 맞서 경기진행을 하는 임원들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하였는데 특전사에서도 여성대원이 30여명이나 열띤 응원을 하여 이채를 더하기도 하였으며 지방팀들도 이에 뒤질세라 재경선후배와 출신선수들이 벌인 응원에도 동정의 눈길을 모았다.

결승전 막바지에서 판가름난 종합전적



(초여름의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입후에
여지없이 응원에 열중하는 관중들)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준결승과 결승전을 치루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경기가 속행되었는데 고등부에서는 전날의 승세를 몰아세운 성동상전이가 3체급을 결승에 진출시켜 2연패의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으며 남산공전이 2체급을 진출시켜 만만치 않게 호적수를 보였고 소수 정예로 76년도 중고연맹회장기 단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준결승전에서 고배를 마시며 팽타급만을 외로이 결승에 진출시켰다. 그러나 청주농고, 해성고, 대구공고 오현고 풍생고, 만경고 등이 각각 한체급씩 결승전에 진출시켜 만만치않게 이들을 위협하고 종합순위 결정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핀급의 이성형(성일고)선수는 여성기(청주농고)선수를 맞아 첫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나 남아 있는 경기로 보아 입상에는 못미치고 푸타이급에서 조남수(성동상전)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자 성동상전팀은 2연패를 한걸음 다했고 있어 응원단은 온통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열띤 응원가가 장내를 뒤덮었다.

팽타급에서는 오팅박(남산공전)를 맞은 박오성(서울체육고)선수는 열전끝에 박선수의 승리

로 끝났으나 1개의 금메달을 확보한 서울체육고등학교도 우승을 바라보기는 어려웠다.

페더급에서 종합우승이 확정되었는데 성동상전의 김정국선수는 민영기(전주해성)선수를 맞아 2번째의 금메달을 획득, 성동상전은 나머지 체급에 관계없이 종합우승을 확정짓게 되었다.

우승고가 확정되자 2위와 3위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웰터급에서 김상천(동대문상고)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나 미들급과 헤비급을 남겨놓고도 종합순위는 미로에 빠져 혼미를 거듭하다가 미들급에서 장종태(풍생고) 선수가 박천식(남산공정)선수를 물리치자 금, 은, 동메달을 하나씩 획득한 동대문상고가 남산공전을 제치고 2위를 확정지었다. 그러나 출전선수의 소속팀에서도 필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오히려 종합전적에 신경을 쓰고 있는 각팀의 코치들은 초긴장을 하며 경기결과를 주시하였는데 이 경기에서 남산공전이 금메달을 획득하였다면 종합전적에서 남산공전이 2위로 부상되는 게임이었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청주농고의 마상현선수가 전복 만경고의 최태환선수를 물리쳐 청주농고는 핀급의 여성기선수가 획득한 은메달과 함께 3위를 차지하였다.

일반부에서도 결승전 5체급이 진행될 때까지도 좀처럼 종합우승을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상을 꺾이는 난형난제의 게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육군 A팀이 중량급에서 4체급을 명지대학이 2체급, 석사체육관이 2체급 육군 B팀이 2체급을 진출시키고 있어 커다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고 있으나 이들 뒤에 도사리는 동아대, 동양신약, 해군, 성균관대, 회계법인 등이 각각 1체급씩 진출시켜 2,3위를 점치기에는 쉽지가 않았다.

결승전에 돌입하자 한 경기, 한 경기가 종합

전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손에 땀을 쥐게하는 관중들이나 조조의 빛을 감추지 못하는 코치들의 모습을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페더급까지의 경기결과 2체급의 금메달을 획득한 명지대학이 강력한 우승후보로 등장하여 나머지계임을 주시하였으나 웰터, 미들, 헤비에서 계속 육군 A팀이 금메달을 획득 명지대는 2위로 물러나고 말았다. 탄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석사도장이 미들급에서 은메달을 차지 종합 3위를 굳혔다.

그러나 대륙금속, 신촌도장, 성관관대팀들도 금메달을 하나씩 획득하였으나 종합전적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탈락되고 말았다.

개인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개최된 각급 국제대회에 출전하였던 유명선수들이 신진선수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아 제 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발전에는 더욱 과란이 일 것이 예상되나 선수들의 세대교체라는 밝은 조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열전 3일간의 치열한 경기는 막을 내리고 오후 2시에 시상식이 거행되었는데 대망의 우승기를 일반부에서는 육군 A팀이 고등부는 성동상진이 2연패의 영광을 차지한 가운데 우승

기가 수여되었다. 또한 장려상에는 일반부에서 대륙금속과 동양신약팀이 고등부에서는 오현고등학교와 만경고등학교가 수상을 받았다.

실업팀 참가 골목

이번 경기내용을 분석하여 본다면 제일 먼저 경기인구의 저변확대와 고른 경기력의 향상이며 일반부에서 직장팀의 출전이라 하겠다. 이제 태권도가 국내에서는 국방체육으로 많은 학교와 군에서 수련을 실시하며 일반직장에서 간간이 실시를 하고 있으나 경기출전을 목표로한 직장팀의 출전은 앞으로 태권도가 경기로서 일반직장으로 보급되는 팔목할만한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대회기간중 많은 관객의 증가는 태권도경기에 보다 큰 활력소가 될 것이며 출전선수들의 백중한 실력도 서울과 지방간에 격차가 없는 경기력의 향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개인기가 뚜렷한 선수들이 보이지 않고, 경기운영에 있어서도 다소 애매한 점을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명실상부한 국내 태권도의 최고의 대회인 이번 대회는 10개성상을 지나 전통에 대회로 성장된 것이 분명하다.



(일반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육군 A팀)



(고등부 우승팀인 성동상업전수학교)

종합전적

일반부

종합우승 : 육군 A팀
2 위 : 명지대
3 위 : 석사체육관
장려상 : 동양신약
대통령속

고등부

성동상업전수학교
동대문상업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만경고등학교

체급별 입상자 명단

고 등 부					일 반 부				
체급	등위	성명	소속		체급	등위	성명	소속	
핀 급	1	이승현	성동상업전수학교		핀 급	1	박문창	식육광철	대통령속
	2	이수호	성동상업전수학교			2	하최	신동양신약	대통령속
푸라이급	1	조김박오	성동상업전수학교		푸라이급	1	이최	성동상업전수학교	신동양신약
	2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2	이최	성동상업전수학교	성동상업전수학교
빠탐급	1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빠탐급	1	이정	환중법정	명지대
	2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2	김박	수호합기	명지대 B
페더급	1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페더급	1	김박	수호합기	성동상업전수학교
	2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2	유우	환중법정	육군 A
라이트급	1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라이트급	1	김박	수호합기	육군 A
	2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2	유우	환중법정	육군 A
웰더급	1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웰더급	1	김박	수호합기	육군 A
	2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2	유우	환중법정	육군 A
미들급	1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미들급	1	김박	수호합기	육군 A
	2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2	유우	환중법정	육군 A
헤비급	1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헤비급	1	김박	수호합기	육군 A
	2	김민	성동상업전수학교			2	유우	환중법정	육군 A

감 격 의 2 연 패

성 동 상 전



(푸라이급에서 금메달 획득한 조남수선수를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인해 교장)



(시상식에서 입상선수들에게 꽃다발을 걸어주는 이 교장)

많은 사람들은 승자를 부러워하며 다음 대전에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곤 한다. 이러한 영광의 뒷안길에는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교훈삼아 성동상전의 2연패에 박수를 보내나 자만하지 말고 3연패의 고지를 향한 줄기찬 노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우승의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만 다룬 팀들도 계속적인 경주를 기대해 본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경기관계 임원들의 눈길을 모은 성동상업전수학교 이인해 교장의 정성어린 뒷바라지의 모습은 대회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경기를 지켜보며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회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이래 이번 대회에 앞서 열렸던 각종 단체경기에서는 입상권에서 탈락 다소 불안한 점도 없지않았으나 2연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회를 두달 앞두고 부터 합숙 훈련 등 대회를 위한 피나는 훈련을 거듭하였다고 장준효체육교사와 정진영 사범은 귀뜸을 한다. 합숙훈련 중 수련에 열중하는 선수들에게 매일 체력관리를 위한 따뜻한 손길은 음식마련까지도 이 교장의 정성의 뜻이 담겨 결승전에서 체급에서 우승을 할때마다 기쁨의 눈물을 보이는 선수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다.

2체급의 금메달로 종합우승이 확정되자 선수들과 응원단의 함성은 사기가 충전 교가와 응원가를 힘차게 부르며 환성을 올렸는데 라이트급에서도 성동상전의 김현덕선수가 연강전에서도 비겼으나 추첨승을 건우어 이날의 국기원은 마치 성동상전팀의 축제일과 같았다.

우승이 확정된 후 선수전원과 함께 경기장 밖으로 나온 이 교장은 선수들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일싸안은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시상식에서도 성동상전선수들의 메달이 수여될때마다 일일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

동양신약.....첫 직장선수 출전

일반부에서 출전선수들을 보면 전년에 비해 무려 11개팀이 참가하여 태권도 경기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동양신약팀의 출전은 이번 대회에서



(정려상을 받고 선수들과 기념촬영 앞줄우로부터
서인형사장, 김순영코치, 유종현 전무)

얼은 커다란 수확중에 하나인데 태권도가 일반직장으로 보급되어 취미활동의 영역을 넘어 선수육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첫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처녀출전한 이번 동양신약 선수들은 6체급만 출전하여 단체입상에서는 탈락되었으나 최주성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여 기쁨을 토하였다. 그러나 74년도 태권도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이기형선수를 주축으로하는 나머지 선수들이 입상권에서 탈락되고 말았지만 서인형사장은 앞으로는 승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회에 출전시키겠다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였다.

오늘날 선수들의 활동기간이 학교와 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동양신약의 태권도부 육성은 화려한 종목과 인기종목에만 치중하는 많은 회사에서 받아 드려 할 귀감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金順永사범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작에서 중도에 포기함이 없이 계속적인 전진을 당부한다.

여군 공수대원 응원.....인기

대회 2일째와 3일째에는 육군 B팀의 응원단 속에 공수특전사에 근무하는 여군 30여명이 열띤 응원을 벌여 관중의 눈길을 모았는데.

경기에서 육군 B팀이 출전할때는 힘차게 군가를 부르며 환호를 올려 출전선수들의 사기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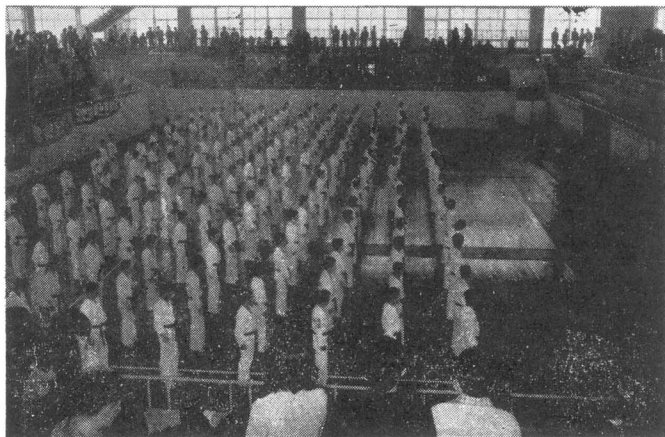
이날 경기에 응원 나온 여군들은 모두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어 승단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육군 B팀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자 환호를 올리고 있다.)

1976년도 전국 신인태권도선수 선발대회

National New face Taekwondo Championships



(경기에 앞서 출전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주의를 듣고 있다)

지난해의 최우수선수선발대회이후 4개월만의
떨췄했던 경기장을 열면 응원과 젊음을 불태우
는 기합소리는 국기원경기장에 새로운 활기를
넣어주고 있다.

금년들어 전국규모의 첫번째 태권도대회인
1976년도 전국태권도신인선수선발대회가 76년 3
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대한태권도협회주
최로 국기원에서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참가선수들을 보면 인천체전을 비롯 군선수들
이 대거 출전한 고기부와 남산공전, 성동상전등
의 많은 선수들을 출전시킨 중기부 등 총 616명
이 참가 전년에 비해 100여명이상이 출전하여
경기인구 저변확대에 날이 갈수록 열도를 더해
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9시부터 경기를 시작

오후 2시 입장식까지 경기가 속행되었는데 준준
결승까지를 2분 2회전으로 진행 다소 선수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입장식에서 김덕수선수의 선수
대표선서에 이어 오후 6시까지 속행된 경기는
중기부 판탐급까지 거행되었는데 가장 많은 체
급이 풀린 중기 판탐급의 경우 무려 126명이나
출전 7번의 경기를 치루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한 경기가 끝날때 마다 다음 출전권을 획득
한 선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였다.

이일제인 27일에도 오후 6시까지 준준결승전
을 가졌는데 비교적 예선전에서는 선수들이 실
력차가 두드러져 일방적인 공략으로다음 회(回)
전의 진출권을 무난히 획득하는 선수들도 있
으나, 준준결승전부터는 비교적 신중을 기하는 경

기운영으로 우승부를 기록, 계체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회수가 늘었다.

마지막날인 28일에는 오후 3시까지 경기를 거행 중기부 8명 고기부 8명이 급넌들어 첫번째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이날 우승자들을 보면 중기부에 경우 남산공전이 5체급을 석권 가장 많은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가장 많은 응원단을 동원한 최영렬사범은 한껏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고기부에서는 경량급에서 2체급을 따냈으며 무라급에서 김형무선수(대신고)는 김대희선수(인천체전)를 물리쳐 고교선수로써 기업을 토했다.

나머지 5체급은 모두 특전사선수들이 차지 각종 대회에서 강팀으로 등장하고 있는 특전사선수들의 첫 서전을 5체급 석권이라는 점은 앞으로 단체전에서 무서운 다크·호스로 주위의 관심을 모았다.

예측을 불허하는 태권도경기는 실력의 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한 일격필살의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음 回戰의 출전을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열띤 공방전을 벌인 이번 대회에서는 앞으로 제 2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한국대표선발전에 있어 파란이 일것이 예상된다

특히 가장 많은 선수층이 열전을 벌이고 있는 무라이, 판담, 페더, 라이트급등 경량급에 경우보다 치열한 열전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두드러진점은 75년 군·민통합이후 군선수들이 대거 참가한점이 특

이하였고 75년도신인선발대회에서 처음으로 기용한 배심원과 심판원들의 활약도 한몫을 맞아 무리없는 경기운영을 치룰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중량급선수의 빈곤은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미들급의 경우 2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 다소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상대방안면을 돌려차기로 공격하는 순간)



(앞줄이 고등부 뒷줄이 일반부 우승자)

체급별 우승자 명단

중 기 부						고 기 부					
체	급	성	명	소	속	체	급	성	명	소	속
핀푸	라	이	홍	수	전	핀푸	라	이	장	윤	전
빠	타	이	상	원	전	빠	타	이	김	무	전
페	터	박	해	홍	전	페	터	박	태	전	전
라	트	영	상	관	전	라	트	영	래	대	전
엘	트	웅	회	심	전	엘	트	웅	병	신	전
미	트	천	영	기	전	미	트	웅	웅	체	전
혜	트	형	천	수	전	혜	트	웅	만	대	전
				원	전				덕	수	전
				만	전				하	학	전
				인	전				수	수	전
				산	전				국	대	전
				전	전				1	공	전

제 5 회 전국소년체육 대회 태권도경기

The 5th Junior National Games
Taekwondo Competition

제 5 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76년 6월 3일부터 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실록의 계절 6월의 첫주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스로건 아래 전국 11개 시도지부에서 88명의 선수들이 향토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벌였다.

태권도경기는 중등부만으로 4일 5일, 양일간 국기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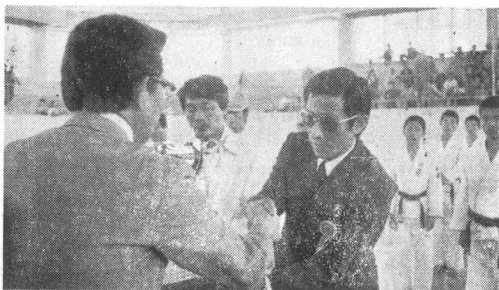
4일 첫날에는 준결승전까지 72계임을 마쳤는데 채점방법이 점수제로 되어 있어 각도임원들은 대진표작성부터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충청북도팀은 미들급을 제외하고 7체급이 부진승으로 준준결승까지 진출권을 획득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오전 10시부터 거행된 경기는 핀급의 최상현(전남)선수대 박명철(부산)선수가 A 코트에서 첫 경기를 치렀는데 무승부로 계체승으로 박명철선수가 준준결승에 진출하였다.

준결승전까지는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팀이 없이 혼전을 거듭하는 경기가 벌어졌는데 평준화된 각도의 경기 운영은 열전만을 거듭하였으나 서울팀이 준준결승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공교롭게도 전북팀은 한번도 서울 팀과 겨룸이 없이 결승에는 5체급을 진출시켰고 나머지 선수들도 대부분이 준결승전까지 치뤄 결승전에 관계없이 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

대진운이 가장 좋은 충북팀은 3체급을 서울팀은 4체급을 각각 결승전까지 진출시키고 종합 2



(종합우승을 차지한 전북대표 감독이 우승트로피를 받고있다)

위를 놓고 결전을 벌이게 되었다.

5일 결승전에서는 핀급의 권기문(전북)선수가 박명철(부산)선수를 물리치고 첫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푸라이급에서 양기모(서울)선수는 충북의 임관인(선수를 맞아 열전끝에 우승의 영광을 차지 서울팀에게 첫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뽕타급에서는 오현철(전북)선수대 오세운(충북)선수는 시종 열전을 벌이며 8회전을 마쳤는데 무승부로 공동우승을 차지하였다.

페더급에서는 이태희(서울)선수가 구인회(경기)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하였는데 외로이 결승전까지 진출한 경기도팀의 구선수는 우승의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은메달에 머무렀다. 라이트급에서는 김상훈(서울)선수와 최성식(강원)선수가 각각 공동우승을 차지하였는데 강원도팀에서는 유일하게 최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웰터급에서는 신현수(충북)선수가 정진덕(전

복>선수를 물리치고 우승 충북팀은 판담급에 이어 또다시 금메달을 추가했다. 미들급에서는 임백신(전북)선수와 김영식(서울)선수의 치열한 접전 끝에 김선수의 승리로 끝났다.

이날의 마지막 경기인 헤비급에서는 김민호(서울)선수와 박경수(전북)선수의 치열한 접전은 좀처럼 승부를 판가름 하기가 어려웠는데 뒤돌려차기가 장기인 김선수도 공격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밀리고 밀치는 공방전만 계속하며 결정적인 득점점을 연결하지 못하고 경기를 마치고 공동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로서 8체급의 우승자를 가려내고 경기를 모두 마쳤는데 종합우승은 74.5점으로 전라북도 66.5위점을 얻은 서울팀이 2위를 충청북도가 62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5위부터 10위까지의 자팀득점은 고른 분포를 보여 불과 2.5점 사이에서 순위가 결정이나 경기력의 고른 분포를 잘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경기력의 향상을 위한 전국적인 대회에서 지나친 각도의 승부욕은 과열경쟁으로 빛나는 자라나는 어린청소년들에게 무리한 우승만을 강요하는 것은 각도임원들의 자숙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심판원 구성에 있어서도 좀더 경험있는 심판원으로 정확한 판정 및 경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발공격으로 득점을 얻는 장면을 주심이 지켜보고 있다)



(상장을 앞에놓고 기념촬영을 한 우승자들)

종합득점순위

등위	시도지부	득 점
1	전라북도	74.5
2	서울	66.5
3	충청북도	62
4	경상남도	49
5	충청남도	42.5
6	경기도	41.5
7	부산직할시	41
8	제주도	40
9	강원도	40
10	경상북도	39.5
11	전라남도	29.5

체 급별 입상자 명단

체 급	1 위	2 위	비 고
핀 급	권기문(전북)	박명철(부산)	
푸라이급	양기모(서울)	임관인(충북)	
반 탄 급	오현철(전북) 오세운(충북)		공동우승
패 터 급	이태희(서울)	구인회(경기)	
라이트급	김상훈(서울) 최성식(강원)		공동우승
웰 터 급	신현수(충북)	정진덕(전북)	
미 들 급	김명식(서울)	임백신(전북)	
헤 비 급	김민호(서울) 박경수(전북)		공동우승

제 3 회 전국 중·고등학교 연맹

회장기쟁탈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The 3rd Middle and High School Taekwondo Competition

제 3 회 전국 중·고등학교연맹회장기쟁탈 단체대항태권도대회가 76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2회째까지 단체전으로 팀별로 경기를 치루었던 것을 체급별 입상자를 종합하여 단체우승을 판가름하게 되었다.

참가학교를 보면 고등부에서는 휘문고등학교를 비롯 20개 학교가 중등부에서는 보성중학교를 포함 13개 중학교가 회장기의 향방을 놓고 2일간의 열전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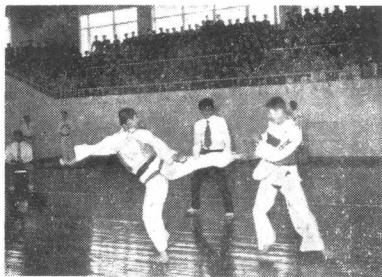
첫날 30일 개최식에서 새로이 바톤을 이어받은 강석규(대성고등학교교장) 중·고 태권도 연맹회장은 개최사에서 『태권도는 신체적 발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수양을 겸비한 훌륭한 스포츠』라고 전제하고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년도 우승팀인 고등부의 서울체육고등학교와 중등부의 풍성중학교가 각각 우승기 반납이 있는 후 유하영(서울체육고) 선수의 대표선수선서가 있는 다음 경기가 속행되었다.

경기는 고른 경기력의 분포를 보이며 백중한 실력의 차를 보이며 결승전에 돌입하였는데 고등부에서는 소수정예의 서울체육고등학교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내용을 보면 오히려 전년에 비해 축소된 감도 없이 많았는데 참가선수 수에서 다소 줄어든 형편이며 대부분의 출전학

교가 서울팀에 불과하여 앞으로 중·고연맹의 보다 긴밀한 시도지부와의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옆차기를 시도하였으나 뒤로 피해 득점을 허용하지 않고 공격자세를 취하는 남산공전 선수)

종합전적

고등부

우 승 : 서울체육고
준우승 : 성동상전
3 위 : 남산공전

중등부

한영중학교
대성중학교
성일중학교

체급별 우승자 명단

고등부

핀 김동섭(동대문)
푸라이 김중기(서울체육)
랩 박오성()
페더 이평우()
라이더 김장윤(남산공전)
엘 김상진(동대문)
미 김창식(남산공전)
헤 비 최대환(만경)

중등부

최창화(성일)
양기모(풍천)
오세훈(가덕)
이태희(한영)
김상훈(한영)
신현수(가덕)
임용진(풍생)
정광수(우성)

〈오지리〉.....〈AUSTRIA〉

조용히 뿌리내린 알찬 태권도 열매

Taekwondo Downs Firm Roots in Austria

—Kyong Myong Lee—

제12회동계올림픽개최지 인스브르크

비교적 일찍이 그리고 조용히 뿌리를 내린 인스브르크의 태권도 열매는 이제 오스트리아 곳곳에 뿌려져 새로운 줄기를 내리고 있다.

Klagenfurt에도, Linz에도, 음악의 도시 Vienna에서도 성공적으로 보급되는 태권도는 그동안 뿌리깊은 타동양 무술을 시기하지도 않았으며 모함하지도 않았다. 이들에게 까지도 꾸준히 태권도를 보여주었으며 스스로 판단하기를 기다렸다.

그 결과 인스브르크시태권도회회는 물론 오지리 태권도협회도 결성 지난 2월에는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총재와도 오지리태권도의 앞날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빛나는 결과의 산과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경명사범은 제12회동계올림픽(76년 2월, 인스브르크)에서도 한국선수단을 위한 보이지않은 노력은 직위없는 외교 사절로 보람을 느꼈다고 전해왔다.

한편 제 1회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오지리 대표선수선발전과 함께 지난 5월에 결성된 유럽태권도연맹에서는 기술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보다 큰 활약을 기대 해 본다.



(선발전에서 열전을 보이는 미들급선수)

비엔나 단군 태권도 클럽

Tangun Taekwondo Club in Vienna

—Lee Kwang Bae—



(수련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광배 사범은 단군태권도클럽(Tangun Taekwondo Club)에서 지난 4월21일부터 23일, 3일간 태권도시범으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곳의 일간지인 Fvoritner Zeitung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 호구를 입은 수련생과 가위차기를 하는 이광배사범사진을 실은 기사에서는 태권도란 무엇인가, 태권도의 역사 및 전망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하여 지난 17호에 소개된 서영철사범과 함께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본다.

〈네델란드〉.....〈NETH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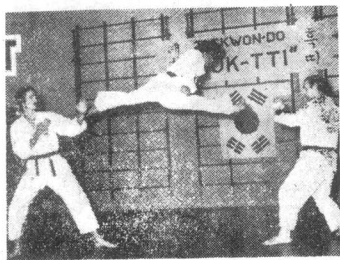
성황을 이루는 네델란드 태권도

Taekwondo Boom in the Netherlands

최 경 안 사범

동차와 류립의 나라 네델란드의 태권도 소식은 지난 12월에 테오 살름(Theo Salm)씨의 종주국 방문으로 상세히 소개된바도 있다.

금후의 소식은 날로 늘어나는 네델란드의 태권도 인구는 이제 해외파견시 대표선수선발전을 몇일을 치를 정도로 많은 경기인구도 확보하고 있다는데 특히 흑띠태권도 학교는 도장명칭이 우리말의 흑띠(Hoktti)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말 순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인 가슴에 묘한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이곳의 최경안사범은 TV 등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태권도의 저변확대는 물론 다른 동양무술과의 경쟁에서도 팔목할만한 우위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네델란드의 유력지 하벤루트스·돈델다그(Havenloods. Donderdag)지는 최사범의 시범사진과 함께 상세히 보도하고 있어 앞으로 네델란드의 태권도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최사범은 전하고 있다.



(태극기 위에 걸려있는 흑띠라는 우리말이 인상깊다)

〈덴 마 크〉.....〈DENMARK〉

성황리에 끝난 태권도 연무시범

Taekwondo demonstration Ends in Success

—SONDER BORG Taekwondo Club—
PROGRAM

76년 4월 4일 덴마크 쉐더보로그(Sønderborg) T.K.D에서 개최된 태권도연무시범을 성공리에 끝마쳤는데 신부영, 김만금, 박광철사범을 비롯 최경안, 백전식, 이범례사범들이 시범에 출전 그곳 관중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수련생들중 많은여자 수련생들이 있는 것이 특징인 쉐더보로그T.K.D Club에서는 비록 미숙하지만 그동안 배운 태권도의 품세등을 선보여 앞으로 많은 회원확보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전해왔다.



(시범 팸플릿)

〈터 키〉.....〈TURKY〉

—제1회 유럽태권도 선수권대회출전 터키대표선수선발전—

Turkish Taekwondoists Selected for the European Championships

—김 정 관 사범—

제 1회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터키대표선수선발전이 4월1일부터 4일까지(4일간) 아다나에서 개최되었다.

18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4일간의 열전을 벌인 이번 대회에는 치아트·우스칸터키태권도협회장을 비롯 주터키한국대사관의 박영철참사등이 하루도 빠짐없이 경기를 참관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4일 시상식에서는 박영철참사가 입상한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하였다.

이날 선발된 터키대표선수들은 유럽대회에 대비하여 20여일간의 강화훈련 계획을 수립 이미 체육성의 승인을 받았다.

비교적 태권도가 일찍기 보급된 터키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교두보로서 착실히 성장하고 있는데 제 1회 아시아대회에 집행위원으로 참석한바도 있는 치아트·우스칸터키태권도협회장은 유럽태권도연맹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제 2회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를 이스탄불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이곳 주재 김정관사범은 한국대사관 자녀들에게도 태권도를 지도하여 이제 는 국기원 승단심사에 추천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입장식에서 출전선수들이 경기주의를 듣고 있다)

(대사관 자녀들도 태권도수련에 여념이 없다.
뒷줄 우로 두번째가 김정관 사범)

<스 페 인>

<SPAIN>

어린이들에게도 수련가능

Taekwondo, Eligible Sports for Children

—<Barcelona> Cho young Joo—

Cho Young Chu, árbitro profesor y periodista

Cho Young Chu, árbitro profesor y periodista, es el único español que ha sido elegido para ser profesor de Taekwondo en la categoría de Niños y Jóvenes en el Campeonato de España de Taekwondo, que se celebrará los próximos días en el pabellón de la Exposición de Madrid. Cho Young Chu, que es periodista, profesor y árbitro, ha sido elegido para ser profesor de Taekwondo en la categoría de Niños y Jóvenes en el Campeonato de España de Taekwondo, que se celebrará los próximos días en el pabellón de la Exposición de Madrid.

Cho Young Chu, árbitro profesor y periodista, es el único español que ha sido elegido para ser profesor de Taekwondo en la categoría de Niños y Jóvenes en el Campeonato de España de Taekwondo, que se celebrará los próximos días en el pabellón de la Exposición de Madrid.

(가위차기 시범을 보여주는 조영주 사범)

내용은 『태권도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해낼 수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로 어린이의 수련이 금지되고 있는 스페인의 체육관계자들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제 태권도는 현대화된 국제적 공인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이즈음 스포츠체육관계자들이 무도로서만의 태권도를 인식하지 말고 경기로서 보다 장려할 수 있는 태권도가 되도록 주재사범들의 본투를 기원한다.

<에 지 트>

<EGYPT>

카이로 대학에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Cairo U. Adopts Taekwondo in Its Curriculum

노 승 옥 사범

지난해 제 2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결과를 알·알람지등에 대서특필로 보도된 에지트의 소식은 지난 18호에도 소개된 바 있다.

그후 에지트태권도의 새로운 신편은 에지트경관대학에서 태권도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카이로대학에도 정규체육과목으로 채택하기로 학교당국의 확약

제 1회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와 제 3회국제심판강습회가 열려 세계태권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바르셀로나(Barcelona)市 이곳에서 활약하는 조영주사범은 4년간의 자고끝에 개인도장을 마련했고 지상(紙上)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태권도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에 커다란 성공을 걸우고 있다고 전해왔다.

제 1회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스페인대표선수발탁 결과를 이곳의 유력지인 디센(Diden)지에 기고한 것은 물론 스페인태권도의 전망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보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424」紙, 데포르트(Deporte)등에 실린 기사

을 받았다고 밝은 소식을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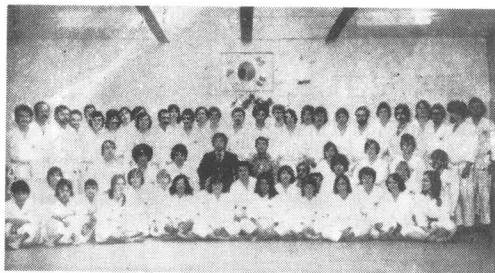
또한 중동의 구심이 되는 에지트에서도 중동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한 꿈을 키우고 있는 노승복사범은 노력한 땀의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명심하여 더욱 정진있기를 기원한다.

〈서독〉.....〈GERMANY〉

N.A.T.O 연합군을 지도

N.A.T.O Soldiers Learn Taekwondo

—Krefeld 김광우 사범—



(김광우 사범(중앙)과 수련생들)

크래펠트(TaeKwondo Sport Center Krefeld)라는 종합학교를 기점으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우기 나토(N.A.T.O)에 속해있는 영국·벨기에군등 250여명을 지도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위에 성장해 있다.

라인강을 동쪽으로 서쪽으로는 네델란드에 인접해 있는 인구 60만의 공업도시, 크래펠트(Krefeld)는 독일인의 근면성을 잘 나타내는 아름다운 소도시이다.

이곳에서도 동양의 무술은 이미 10년 전부터 가라메가 뿌리를 박고있으며 흥풍의 도장이 10여개를 헤아리고 있다.

한국인이 생소한 이곳에서도 크래펠트 시립체육관에서 출발한 태권도의 지도는 이제 인식을 달리하여 태권도스포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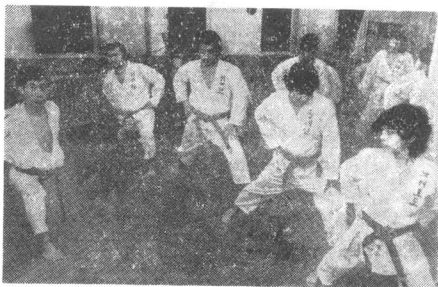
중소도시에 착실한 성장

Steady Progress in W. German Cities

—Ludenscheid의 정권수사범—

웨스트파라리아(West phalia)州的 루덴사이드(Ludenscheid)는 우리에게 낯익은 도시는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태권도 붐은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맹렬히 보급되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곳 루덴사이드에서 활약하는 정권수사범(5단)은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지도에 힘을 기울이고있는데 유럽에서는 성인위주의 지도 방법에서 청소년은 어린이들의 지도에 비중을 두고 있어 이제는 10세 미만의 많은 수련생을 확보하고 있다.



태권도 수련을 지도하는 정사범(좌단)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들 도복에 우리말 이름을 한글로 써넣어 한국에 대한 소개를 간접으로 한몫하고 있는데 그곳 주민들로 부터 정사범은 아시아적 인내로 정통태권도를 지도하는 유능한 사범으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의 태권도보급전망을 낙관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 브라질 ●

● BRAZIL ●

남미의 열풍에 도전하는 태권도

Taekwondo Boom Spreads Throughout Brazil



박 봉 서 사범

남미대륙의 중심부에 끝없이 펼쳐지는 장글과 세계 최대의 아마존강은 브라질의 메카로 우리에게 는 그렇게 낯설은 나라는 아니다.

특히 10여년전부터 농업이민으로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한국인의 근면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걸음 나아가 태권도로서 더욱 배달민족의 긍지와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로 뻗어간 한국의 태권도가 예외없이 브라질 곳곳에서도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데 세계의 美 港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내륙으로 조금들어간 베르나르도(BERNARDO)에서 태권도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박봉서사범은 국내에서 2급 국제심판으로 활약하다가 지난 75년 초 브라질에 정착한 이래 남미대륙의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보급에 기반을 닦았는데 성공 이제는 사오·파울로(SAO PAO LO)市の 유력지인 폴라 메트로폴리타나(FOLHA METR OLITANA)에서는 전면을 할애하는 대서특필로 태권도의 역사는 물론 심사규정등에 관해서는 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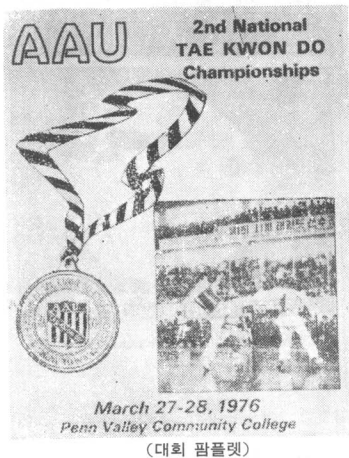
대서특필로 보도된 박봉서 사범시범

정면과 상세히 보도된 각종 태권도규정

년한 까지도 자세히 보도하였고 경기규정에서는 중간 휴식시간까지 상세히 기술하였다.

남미에서도 이미 카라테등 많은 동양 무술이 판을 치고 있지만 현지에서 활약하는 태권도사범들은 우월한 기술과 경기화된 태권도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태권도연맹을 모체로 한 남미태권도 연맹 결성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밝은 소식을 접해본다.

미국의 태권도 종합소식 News Summary in the Unites States



AAU 주최

제 2회 전 미국 태권도 선수권대회

AAU —The 2nd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제 2회 전 미국 태권도선수권대회가 76년 3월 27~28일 일 양일간 미조리주 펜사스시에 있는 펜·빌리 지역대학 (Penn Valley Community College)에서 열렸다.

개회식에서는 합병준주미한국대사의 격려사 및 찰스·B 윌러펜사스市長의 치사등에 이어 남자부와 여자부의 경기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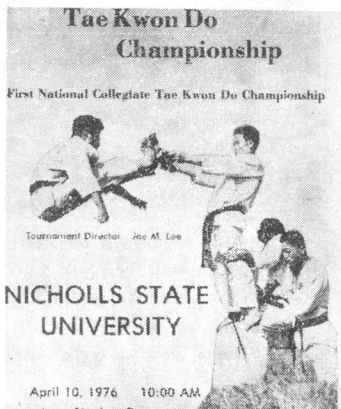
제 1회 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The 1st National Collegiate Taekwondo Championships—

제 1회 전미주지역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가 76년 4월 9일 10일 양일간 루이지아나주에 있는 티보다옥스(THIBODA VX)시에의 니콜스주립대학교(NICHOLS STATE UNIVERSITY)에서 열렸다.

토너먼트로 거행된 이번 경기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참가를 못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각종대회가 많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갖는 대학선수권대회로 정초를 다진 대회라 하겠다.

한편 니콜스대학에 체육학 강사로 일하는 이만재사범은 이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과 함께 국기원을 방문 김충재를 예방했다.



제2회 태평양 태권도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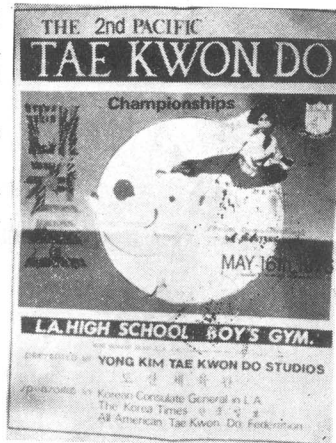
The 2nd Pacific Taekwondo Championships

제2회 태평양 태권도대회가 5월 16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L.A고등학교체육관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일보 미주지사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김영사범의 시범과 함께 성공리에 끝마쳤다.

또한 김사범은 미국 무도의 권위자인 블랙·벨트(Black Belt)지의 기고에서도 태권도가 무도에서 스포츠로 전환되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으나 다른 경기와는 달리 스포츠로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도정신을 이어받는 태권도를 보급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민간외교로서 국위선양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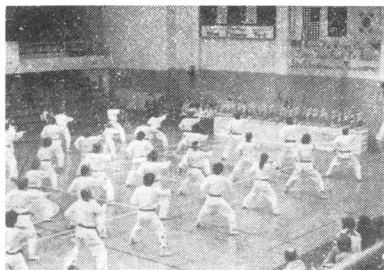


(대회 선전포스터)



동부텍사스 EAST TEXAS

추 교 승 사 범



(경기에앞서 기본준비운동을 하는 출전선수들)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경기는 추교승사범에게 지도받은 120명의 수련생들이 참가하여 체급별로 우승자를 가려냈는데 페레아(Feare)라는 이곳 신문에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제 미국에서도 태권도는 무도에서 경기로 보다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하는 추사범 경기이전에 태권도정신에 입각한 수련생들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지도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고 보급할 것이라고 전한다.

동부텍사스에서 활약하는 추교승사범의 소식은 태권도지 7호에도 소개된바 있는데 금후의 동정은 착실히 뿌리내린 태권도의 열매를 자세히 보내왔다.

지금은 5개의 도장을 13개로 확장하고 파노라대학(Panola)과 롱비뷰(Long view)대학에도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특히 71년 이곳에 정착한 이래 첫 동부텍사스태권도대회를 시작한 이래 빠짐없이 대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지난 4월에는 제5회 동부텍사스태권도대회

(The 5th East Texas Taekwondo Tounnament)를

하와이 Hawaii

박 인 덕 사범

1959년 8월 21일 미국의 50개주로 편입된 하와이는 8개의 큰섬으로 태평양의 검푸른 파도를 가르고 있다.

와이키키해변의 끝없이 펼쳐지는 야자수와 종려나무는 세계의 휴양지로 너무도 유명하다.

우리 한국인들도 70년전 일제시대의 사탕수수밭의 이민이 시작된 이래 15,000여명의 교포가 생활의 터전을 잡고있다.

그러나 원주민과 난폭한 사모아인, 일본인들의 많은 인구비례에 비하면 한국인의 근면과 인내심은 더 높게 인식되고 있지만 태권도로 더욱 더 인식을 탈리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긍지를 갖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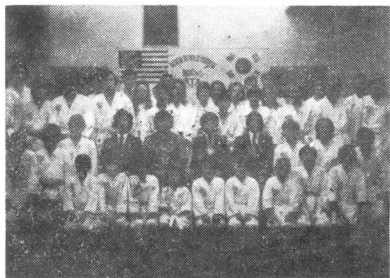
쿠어오·팍·테라스(Kuhio Park Tehrace)에서 활약하는 박인덕사범은 한인회를 중심으로한 활발한 태권도보급으로 사모아인들의 난폭한 행동에 곤란을 겪어야 했던 지난날을 상기하며 매년 열리는 각국의 고유문화소개에서도 태권도 시범은 빠질수 없는 종목으로 터전을 잡았다. 그러나 뿌리깊은 일본인들의 가라테의 힘겨운 경쟁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태권도사범들은 직책없는 외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한 맘의 결실을 기대한다.



(푸른·잔디에 힘차게 뻗어올리는 옆차기동작)

조 지 아 주 Georgia

서 영 선 사범



심사를 마치고 수련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미국 조지아주 컬럼버스(Columbus)市 애틀랜타(Atlanta)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이곳의 미국의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용산과 동두천에 근무하였던 병사들이 반갑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73년 봄 낯설은 미국 땅에 젊음의 정력만을 가지고 끝없이 밀어닥치는 노스탈자의 향수를 태권도 구령소리로 극복하였다. 3년의 자고의 노력끝에 이제는 Columbus대학에도 태권도를 정식체육과목으로 채택하고 2개의 도장에는 400여명의 수련생들과 함께 태권도로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 서영선사범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주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있다.

특히 이곳 수련생 중에는 6.25동란의 전쟁고아로 7살에 미국에 입양하여 오마하·네바레스카(Omaha Nebraska)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를 지망하는 케넷스 아스데스(Kenneth Asuddeth)는 다만 자기의 姓이李씨라는 것 이외에는 한국을 모른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이 굳이 이를 두고 한말인것 같이 한국교포사회에 충취무진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는 케넷스는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태권도 수련에도 15년의 경력을 쌓아 4단의 실력(국기원)을 갖고 있다고 자랑한다.

◎ ◎ ◎ 오하이오주 Ohio ◎ ◎ ◎

최 준 표 사 범

오하이오 주의 콜롬버스(Columbus) 市에 자리잡고 있는 최준표, 최영표형제사범은 71년 이곳에 태권도를 정착시킨 이래 이제는 경찰학교에도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7개의 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도에 대한 이곳의 인식은 무도로서 경기로서 성공의 열매를 거두어 학생수 5만을 자랑하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에도 75년 태권도부를 창설 100여 명이 수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에 만족스러운 결과는 체육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은 전망의 소식을 전해왔다.



(유서깊은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겨루기를 수련하고 있다.)

☆ 원 고 모 집 ☆

해의 사범들의 활약상을 다룬 기사를 모집합니다. 특히 미전국 200주년을 맞이한 다채로운 행사 결과를 기대합니다.

원고내용 : 태권도에 관한 기사, 논문, 기행문, 수기 등 원고지 20, 30매 단위

※사진은 흑백사진이 좋으나 천연색 사진도 가능함.

원고마감 : 1976년 8월 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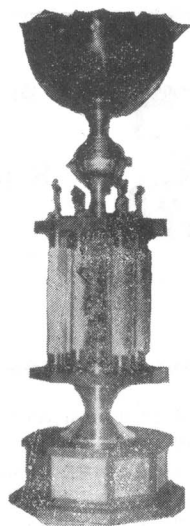
보내실곳 : 서울 중구 무교동 19 대한태권도 협회 편집실

보내주신 원고는 최선을
다해 싣겠습니다!

Cup!!

THE 2ND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SAMYOUNGSA MADE



永遠한 歡喜!!

第二回世界跆拳道大会 優勝

삼영사 製品

대한 태권도협회 및 산하 각종양본관 지정업체

三 榮 金 屬 工 藝 社

서울特別市 鍾路区 司諫洞 六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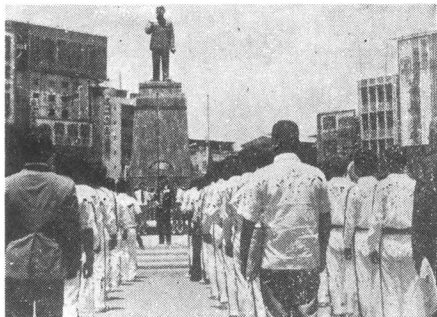
⑦4 4 2 5 2

代 表 禹 成 熙

⑦2 4 2 7 2

⑦4 8 3 0 5

徽 章 部 : 뺏지, 메달, 賞牌, 트로피, 우승컵, 헤난트, 各種旗
 記念品部 : 키홀다, 카우스보당 (各種銅酒잔), (七寶) 보재기, 재털이
 彫 刻 部 : 平面, 立体彫刻, 사출型, 鐵印, 各種鑄型, 建物模型



(카퍼레이드 준비하는 선수들 중앙에 장개석총통동상이 보인다.)

도 비들급에서 승리하였다. 이날 오후 7시에 거행된 저녁경기에서는 패자전까지 치렀으나, 핀급·페더급·해비급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고 밴텀·비들에서 각각 2위를 차지 종합전적은 육전대가 1위 우리선수단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선수들의 실력을 보면 핀급의 劉慶文(리경문)선수는 제 1회 아시아대회 및 제 2회 세계대회에 출전한 노련한 선수였으나 권영운(권영운)선수와는 겨우가 못돼 뒤축으로 득점을 허용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비들급과 해비급등의 중량급선수들은 유연한 몸동작과 우수한 기조체력은 앞으로 많은 시합경험을 쌓는다면 아시아에서는 강력한 다크, 호스로 등장할것이다.

더우기 경기를 관전하는 관중석의 매너와 대만지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값과 TV방송은 우리 선수단에겐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열렬한 교포들의 응원도 잊을수 없을 것이다.

6일에는 다시 대북으로 돌아와 자유중국대권도협회 임원들이 베푸는 만찬회에 참석하고 자유중국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8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KAL편으로 다시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 한·중친선대권도대회의 5일간의 경기의 막을 내렸다.

오늘날 발달된 교통수단은 국제간의 친선경기도 국내 지방경기와 같이 적은 기간만에 치룰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장 우리와 가까운 동승과 민족의 분단을 같이 하고있는 자유중국의 원정경기는 경기이전의 무엇인가 통하는 뿌듯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으며 체계기간동안의 우리 선수단을 돌아와주신 자유중국대권도협회임원들과 노효영(노효영)사범님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원정을 주신 해 주신 회장님이하 협회임원들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경기장면을 대만 전역에 천연색으로 중계하고 있다.)

6월 5일 아침을 흰족으로 마치고 고웅국제청년공회장의 안내로 고웅시청을 방문하여 부시장의 영접을 받았으며 다시 고웅시의회를 방문 역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후 임원들만 고웅국민당 본부 방문을 마치고 11시부터는 이번 경기의 참가팀인 육전대, 육군대표, 남군대표, 우리선수단의 감독, 코치, 선수가 고웅시청 앞 광장에서 부터 고웅중심가까지 밴드에 마쳐 행진을 하였으며 애국가와 자유중국 국가를 연주하는가운데 양국기를 게양한다는 사열 질차에 분승. 시가를 누비는 카퍼레이드를 약 한시간동안 펼쳤다.

오후 2시 고웅시립체육관에 도착 입장식에 이어 육전대의 태권도 연무시범이 끝난다음 8개팀의 경기를 치렀는데 푸라이급에서 이만우선수가 패하고 페더급의 장용무선수가 승리하였으며 유허주선수

협 회 동 정

☆ 76년 2월 8일

제 47회 전국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 : 456명

☆ 2월 14일

1. 제 68회 전국승단심사대회(4단이상 고단자)

장 소 : 국기원

응심자 : 327명

2. 주한외국인지도사범소양교육

장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12명

교육내용 : 주한외국인 승급심사이후 제반
지시사항하달

☆ 2월 15일

제 68회 승단심사대회(3단이하)

장소 : 국기원

응심자 : 573명

☆ 2월 19일~21일

제 11기 3급심판교육

장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25명

☆ 3월 6일

기술심의회개회

장소 : 대한체육회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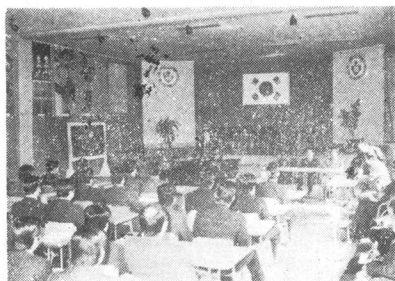
참석자 : 김운용회장, 당연직위원전원, 기술심
의회위원전원(83명)

안건 : 1. 76년도 태권도협회 사업계획전반에
걸친 전망과 자세에 대한 훈시.

2. 서정 색인에 관한 지시사항 낭독.

☆ 3월 8일~13일

제 16기 지도자교육



서정색인에 관한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기술 심의회 전경

장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10명

☆ 3월 14일

제 48회 승품심사대회

장소 : 국기원

응심자 : 825명

☆ 3월 18일~20일

1. 제 1기 2급 심판강습회

장소 : 국기원

참가인원 : 83명

2. 에머슨, 샤핀(EMERSON CHAPIN)부처
국기원방문

뉴욕타임즈 외신부차장인 샤핀씨는 태권도
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한 공로로 김
운용회장으로 부터 국기원 명예회원증 및
기념품을 증정받았으며 성인시범단의 태권
도 연무시범을 관람하였다.

☆ 3월 26일~28일

1976년도 전국태권도 신인선수권대회(경기상
보참조)



협회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장소 : 국기원

참가선수 : 649명

중기부 : 홍형만의 7명 우승

고기부 : 김덕수의 7명 우승

☆ 4월 8일

김운용회장주최 국제군인체육회집행위원을 위한 만찬회(본문기사 참조)

장소 : 코리아 하우스

참석인원 : 집행위원전원

☆ 4월 9일

국제군인체육회(C.I.S.M) 집행위원 17명 국기원 방문

76년도국제군인체육회집행위원 17명과 수행원 전원(본문기사 참조)

☆ 4월 11일

제 49회전국승품심사대회

장소 : 국기원

응실자 : 559명

☆ 4월 17일

제 69회전국승단심사대회(4단이상 고단자)

장소 : 국기원

응실자 : 294명

☆ 4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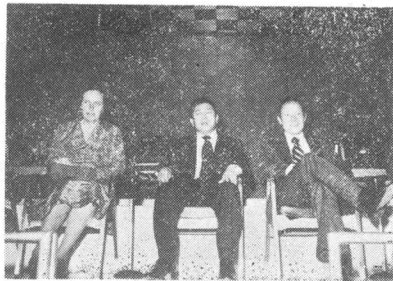
제 69회전국승단심사대회(3단이하)

장소 : 국기원

응실자 : 533명

☆ 4월 28일

모하레(Albert Steerforth Mohale) 레소토체신 장관 및 레소토수상비서 세코노야나(Bereng Augustinus Sekhonyana)씨는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의 태권도연무시범을 관람하고 레소토에서 태권도수련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수련 생각이 난다며 시범을 보여준 어린이들을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했다.



☆ 4월 30일~5월 1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비(Mrs Arohduke Offo VON Habsburg)가 국기원을 방문 태권도시범을 관람하고 김운용회장으로 부터 기념품을 증정받았다.

또한 한미재단부총재인 Myles K Ren씨도 국기원을 방문 김운용회장으로부터 국기원명예회원증을 증정받았으며 태권도시범을 관람하였다.

☆ 5월 17일

제 3회전국중·고연맹회장기쟁탈태권도대회(경기상보 참조)

장소 : 국기원

참가선수 : 경기명의 297명

단체우승 : 고등부 서울체육고등학교

중등부 한영중학교

☆ 5월 24일~29일

제 17기지도자교육

장소 : 국기원

참가기원 : 79명

☆ 6월 4일~5일

제 5회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본문경기

상보참조)

장소 : 국기원
참가선수 : 88명
단체우승 : 전라북도
준우승 : 서울
3위 : 충청북도

☆ 6월 3일~8일

한·중친선태권도대회 한국대표선수 자유중국
원정(본문참조)

단장 : 김순배
감독 : 김봉기
코치 : 이규현
선수 : 권영운 이만우 이성식 강명희
유성열 유형주 장윤준 장용무



☆ 6월 8일

袁國徵자유중국 태권도협회장 방문, 대통령하
사기쟁탈 제11회 전국단체대항태권도선수권대회
참관을 위해 내한한 袁國徵회장은 한중 친선경
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한국 대표선수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자유중국 육전대사령관 당시
방한하고 제 2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된
75년에도 방한한바 있는 袁國徵회장은 대통령하
사기 쟁탈 태권도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였으며,
김운용총재로부터 명예 5단 및 국기원명예회원
증을 증정받았는데 이자리에서 아시아태권도 연

맹결성을 앞두고 김총재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자유중국 태권도원황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갖었
다.

14일에는 김운용총재가 기술심의회 임원들과
함께 袁國徵회장을 위한 오찬이 베풀었으며 15
일 KAL 601편으로 귀국했다.

☆ 6월 10일~12일

대통령하사기 쟁탈

제11회 전국 단체 대항태권도대회(본문경기상
보)

장소 : 국기원
참가팀 : 고등부 27개팀
일반부 23개팀
고등부 : 단체우승 : 성동상업전수학교
준우승 : 동대문상업고등학교
3위 : 청주농업고등학교
장려상 : 오현고등학교
만경고등학교
일반부 : 단체우승 : 육군A팀
준우승 : 명지대학
3위 : 석사도장
장려상 : 대륜금속
동양신약



(袁國徵 자유중국 태권도협회장의 기자회견 장면)

KOREA TAEKWONDO

ASSOCIATION NEWS

☆8 Feb 76

The 47th Poom promotion test
Place:KukKiWon
Applicants:456 persons

☆14 Feb 76

1. The 68th Dan promotion test(over 4th dan)
Place:Kukkiwon
Applicants:327 Persons
2. A seminar for instruct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Place:Kukkiwon
Participants:112 Persons
Agenda:Geup promotion teste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15 Feb 76

The 68th Dan promotion test (under than 3rd dan)
Place:Kukkiwon
Applicants:573 Persons

☆19-21 Feb 76

The 11th 3rd grade of referee course
Place:Kukkiwon
Participants:125 Persons

☆6 March 76

- 1, Meeting of the technical council
Place:Conference room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articipants:President Un Young Kim with technical committee of 83 Persons
Agenda Items:1. 76 task plan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for
all prospect and posture

2. direct about for all administrative busiess of reform

☆8-13 March

The 16th Taekwondo instructors refresher course
Place:Kukkiwon
Participants:110 Persons

☆14 March 76

The 48th Poom Promotion test
Place:Kukkiwon
Applicants:825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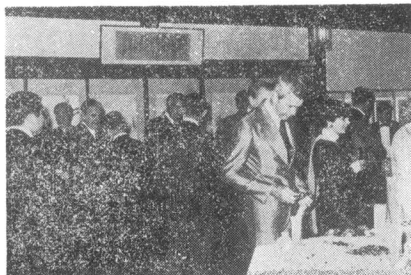
☆18-20 March 76

1. the 1st referee seminar for 2nd class
Place:Kukkiwon
Participants:83 persons
2. Emerson Chapin and Mrs Chapin visited Kukkiwon. Mr Chanpin is overseas dispatch of the New York Times, who is deeply

interested in Taekwondo. President Un Yong Kim Presented Mr. Chapin with an Honorary membership card and souvenirs and watched the Taekwondo demonstration.

☆26-28 March 76

National New Face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649 persons



☆8 April 76

A diner party by Un Young Kim president of WTF for the CISM executive committee members.
Place: Korea House

☆11 April 76

The 49th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kiwon
Applicants: 599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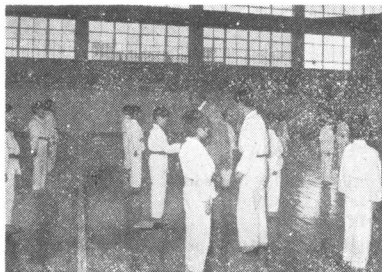
☆17 April 76

The 69th Dan promotion test (over than 4th dan)
Place: Kukkiwon
Applicants: 294 persons

☆18 April 76

The 69th Dan promotion test (under than 3rd dan)
Place: Kukkiwon
Applicants: 533 persons
28 April 76

Mr. Albert Steerforth Mohale, Minister of communication and Bereng Augustinue Sekhonyaya Leuotho visited Kukkiwon and watched Taekwondo demonstration by Nam-daemoon primary school students.



☆17 May 76

Crown princess of Austria Mrs. Arohduke Offo Habsburg visited Kukkiwon and Observed Taekwondo demonstration.

The vice president of America-korasian foundation Mr. Myles K. Ren visited Kukkiwon.

☆May 76

The 3rd Middle & High School Taekwondo Federation Presidential Flag Championships
place: Kukkiwon
participants : 298 Contestants
Winners: High School: Seoul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Middle School: Han-yeoung Middle School

☆24-29 May

The 17th Taekwondo instrutors refresher course
Place: Kukkiwon
Participants: 79 persons

☆3-6 June 76

The 5th Junior National Games Taekwondo competition
place: Kukkiwon

Participants : 88 Persons

1st Place winner:Cholla Pukto

2nd place winner:Seoul

3rd place winner Chungchong Pukto

☆2-8 June 76

Korea-Taiwan goodwill Taekwondo matches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to the Republic of China

Head of Team:Kim Soon Bae

Manager:Kim Bong Ki

Coach:Lee Kyu Hyon

Members:Kwon Young Un, Lee Man Woo

Lee Sung Sick, Kang Myong Hee

Yoo Sung Yeal, Yoo Hyong Joo

Jang Eul Joon, Jang Yong Moo

☆10 June 76

Gen. Yen Kuo Chen

President Yen Kuo Chen of the Republic of China Taekwondo Association visited Korea to observe the 11th Presidential Flag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Championships. Gen. Yen accompanied the Korean National Taekwondo Team to China when the latter returned to Korea after winding up the friendl matches in China.

Gen. Yen participated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event held in Kukkiwon on June 10, and was presented with honorary 5th Dan black belt and honorary Kukkiwon membership card by President Un Yong KIM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He also discuss with President KIM about the Asiap Taekwondo Federation scheduled to be held at the forthcoming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A luncheon was given in his honor by the Council of Techniques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on June 14.

He left for the Republic of China on June 15.



☆10-12 June 76

The 11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Kukkiwon

Particpatants:High School Division 27th Teams

Adult Division 23rd Teams

High School Division

1st Place winner:Sungdong Commercial School

2nd Place:DongdaeMoon Commercial School

3rd Place:Chung Joo Agricultural High School

Encouragement Prize:Ohhyun High School

Mankyung High School

Adult Division

1st Place winner:R. O. K. Army A. Team

2nd Place:Myunggi College

3rd Place:Suksa Gymnasium.

Encouragement Prize:Daereung Metal Company

Dongyang Pharmaceutical Company



김운용 총재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받아 —미국 미조리주 매리빌리대학—

MARYVILLE COLLEGE

SAINT LOUIS, MISSOURI



ONE HUNDRED AND THIRD
ANNUAL COMMENCEMENT

May the Second
Nineteen hundred and seventy-six

졸업식 팸플렛

면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있으며 현재 세계 태권도연맹총재로 있으면서 연맹을 모체로 국제스포츠로 널리 보급하고 있다는 점등을 열거하였다.

김운용총재는 5월 1일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매리빌리대학 제103회 졸업식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1872년에 개교한 미국의 전통있는 매리빌리대학의 이날 졸업식에는 288명의 석사와 3명의 박사학위가 수여되었는데 김총재와 같이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들은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의 지도자로서 200명중 세인트루이스 제일국립 은행장 카렌스·C·박스탈레씨가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명예 문학박사학위에는 주(州)재정관으로 있었던 제임스·이반·스페인하우워씨가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김총재가 박사학위를 받은 공적내용은 한국인으로 문화적이며 지적인 교양을 가지고 많은 외교수완을 김비하여 과거 유엔주재 한국대사관과 런던주재 주영대사관의 제일보좌관으로 활약하였으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한체육회부회장과 대한올림픽위원회장 및 명예총무를 겸직하

President Un Yong Kim Conferred Doctorate Degree

President Un Yong KIM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was conferred an honorary doctorate at the 103rd commencement of Maryville College, St. Louis, Missouri, U.S.A. which was held on May 1.

President KIM was cited by Maryville College President Harriet K. Switzer as follows on the occasion of the conferring of the honorary Doctor of Laws degree:

Presenting a model of involvement in the intellectual, diplomatic, and cultural life of the Republic of Korea, Dr Kim has served in many public posts.

He has been Assistant to the Minister of Defense, Protocol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Deputy Director General of the Presidential Protective Force, and Counselor of the Korea Embassies in Washington and of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Nation.

Mr. Kim has received a Bachelor of Arts and a Master Arts degree from Yonsei

University in Seoul.

He i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Amateur Sports Association and Honorary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he is also active in the revival and popularizing of Taekwondo, a martial art with a two thousand year history that has become an international sport under Mr. Kim's leadership as President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김운용총재 세계청소년 펜싱대회 한국팀 단장으로 폴란드 입국

WTF President Un Yong Kim lead Korean Fencing Team to Participate in World Junior Fencing Championships in Poznan, Poland

제27회 세계 청소년펜싱대회가 개최되는 폴란드에 한국대표팀 단장으로 14일 폴란드에 입국했다. 김총재를 비롯 임원 3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팀은 35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폴란드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개최식에서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당당히 입장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스포츠사상 처음으로 동구공산권인 폴란드에 입국한 선수들은 경기에서도 분투를 하여 한국인의 높은 긍지를 보여주어 감투상을 수상받기도 하였다.



대회 개최되는 Poznan 체육관전경

김운용 총재 시카고 방문

Dr Un Yong Kim President of W T F visited Chicago, U S A



제27회세계청소년태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팀단장으로 폴란드에 입국 대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미국 시카고를 방문 그곳에서 활약하는 태권도사범 40여명과 자리를 같이 했다.

4월30일 오후에 가진 김총재를 위한 환영회에는 시카고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태권도사범들이 대부분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김총재는 『수년간 태권도국가화와 세계화의 작업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미국에서 활약하는 사범들이 앞장서 태권도세계화 정치작업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카고주재 사범들이 김총재 방문을 환영하는 만찬회에서 기탄없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또한 『국제군인체육회 집행위원회에서 지난 4월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또하나의 계기가 된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활약하는 800여명의 태권도사범이 남모르게 고생도 많이 하고 미국사회에 파고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태권도사범들과 본국과의 유대강화를 역설했다.

이날 환영회에서 미국주재 사범들은 김운용총재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했다.

◇알 림◇

심사신청서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적과 현주소 성명은 한자(漢字)와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2. 증명판 사진 3매를 첨부할 것.
3. 소속 관, 중앙 본 관장의 추천을 받을 것
4. 2단(2품) 이상 응심자는 협회 발행 단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이상 4항목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을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체 심사원서를 접수치 않음

大韓跆拳道協會 事務處

館명칭 숫자로 호칭

협회산하 가맹단체인 각 관장단회의에서는 자율적으로 관의식을 배제하고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76년 5월 20일부터 기존관명을 완전제거하고 본회 직할로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호칭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일선도장에서 사용하던 관명칭은 지역 또는 고유명칭 단을 사용키로 하였는데 변경 호칭된 관명은 다음과 같다.

松武館은—1館으로 呼稱

韓武館은—2館으로 呼稱

彰武館은—3館으로 呼稱

武德館은—4館으로 呼稱

吾道館은—5館으로 呼稱

講德院은—6館으로 呼稱

正道館은—7館으로 呼稱

智道館은—8館으로 呼稱

青濤館은—9館으로 呼稱

Different Names of Taekwondo Kwan Replaced By Numbers

The different names of Kwans (Schools) Taekwondo have been aremanded by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d new numericals replaced the Original names of Taekwondo Kwans, effective May 20.

The following are the list of new numerical names given to each Taekwondo Kwan

From Song Moo Kwan to the 1st Kwan

From Han Moo Kwan to the 2nd Kwan

From Chang Moo Kwan to the 3rd Kwan

From Moo Duk kwan to the 4th Kwan

From Oh Do Kwan to the 5th Kwan

From Kang Duk Won to the 6th Kwan

From Jung Do Kwan to the 7th Kwan

From Jei Do Kwan to the 8th Kwan

From Chong Do Kwan to the 9th Kwan



표 지 설 명

국기원을 방문한 국제군인체육회(CISM)집행위원들의 국기원 방문 후 기념촬영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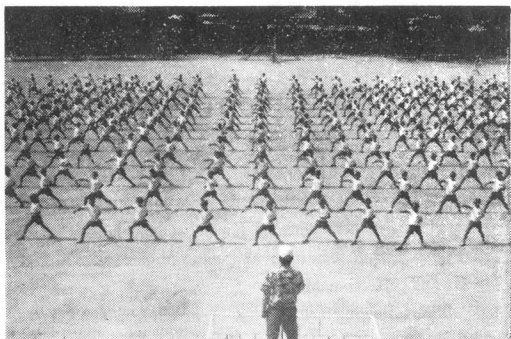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태권도연무시범을 관람하였으며 태권도를 국제군인 체육 경기 종목으로 채택하였다. 1978년 제 1회 국제군인태권도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도 결정하여 태권도의 또 하나의 개가를 올린것에 우리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표지촬영(金永煥)

학급대항 품세경연대회 커다란 성과

충북우암국민학교

“우암산 정기를 한 몸에 품고 무심천
밝은 물에 마음을 씻어 뺏치는 내고장
새싹 되련다”

청주시가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우암산 기슭에 협동하고 봉사하는 어린이 2,800여명이 4교시 후에는 산뜻한 도복을 갈아입고 20분동안 吳武雄체육지도교사의 구령에 맞추어 넓은 운동장을 수놓고 있다. 한 동작 한 동작을 움직일때마다 허공을 지르는 힘찬 기압소리는 우암산에 메아리치고 있다.



(오무웅지도교사의 구령에 맞추어 태극 품세를 하고있는 수련생들)

을 올리는 모습은 흔히 볼수있는 사실이다.

특히 수련생들중 조항오군과 이재홍군은 고학년이 되기까지 약체라고 이야기하던 지난날과는 달리 튼튼한 몸과 명량한 학교생활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박인회교장은 이야기한다.

이제 태권도는 국방체육으로서, 학교체육으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고 실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오늘날의 여건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육체적 발전뿐 아니라 협동과 인내, 극기로서 내일을 짊어질 미래에 주인공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것이다.

보다넓은 기백과 새로운 전통을 확립할수 있는 태권도를 전교생에게 실시할 것을 결정한 박인회교장은 72년 초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날에는 도내 태권도 지정학교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전교생들이 모여 품세와 겨루기등을 짧은 시간에 수련을 하기 때문에 경기에 출전할수 있는 180명의 유품자들은 방과후에도 특별히 남아 수련을 거듭, 도내 행사에서는 단연 두각을 보여 충북교육장기쟁탈태권도대회에서는 2연패를 달성, 3년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겨울방학에도 합동훈련을 갖인바 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학교내의 자체행사로 매년 2회에 걸쳐 학급대항 태권도품세대회를 개최 우수학급은 부상까지 수여하고있어 각급 학년의 담임들은 다른 학급에 뒤질세라 연습에 열

체 육지도자 양성과 우수선수 양성 서울체육고등학교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체육고등학교는 체육지도자 양성과 우수 선수 양성이라는 취지아래 설립된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고등부에서는 각종 경기종목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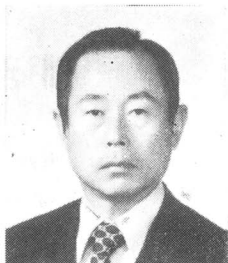
14개부를 가진 이 학교에서 태권도부는 단연 우수한 전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각학년마다 8명씩 확보 소수정예로 설립된 첫해인 74년부터 중고연맹회장기단체전에 출전한 이래 75년도에는 제 2회 중고연맹회장기기를 비롯 제 1회 연세대학교총장기 등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전에 출전하여서는 각종대회에서 채급별 우승에 금메달만 20여개를 획득하는등 일반선수들도 이들을 만만치 않게 생각하는등 경량급에서는 기대할 만한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다.

장순환교장과 42명의 교사, 15명의 전문코치를 둔 이학교는 한국스포츠의 유망종목인 14개부를 장려하고 있는데 입학에서 부터 전문종목에 치중하며 전형을 하는데 일단 입학할 하면 3년간 전연 장학생은 물론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로 오직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

체육시설도 체육전문학교답게 태권도부만 하여도 80여명의 시설은 국내 고교급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으며 기타 부대시설도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노상석(중고태권도연맹 전무이사) 지도사범은 말한다.

이들의 하루 일과도 5교시까지는 일반학교와 다름이 없으나 6,7교시에는 전문 체육과목으로 이론은 물론 실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기초체력단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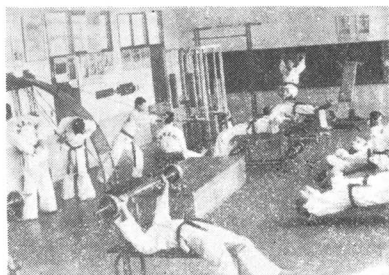
한국스포츠의 중흥을 위해 정부에서는 장기적



장순환 교장



(경기출전에 앞서 2, 3학년 선수들의 기별촬영)



(기초체력 단련을 위한 서킷 트레이닝 장면)

인 안목으로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부터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들 선수들은 보다 큰 사명감을 갖고 노력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한다.

태권도 연무 시범 성황

충북 실내 체육관 —

76년 5월 1일 오후 3시 충청북도 실내체육관에서 태권도연무시범이 펼쳐져 체육관을 메운 1만 2천여명의 관중을 매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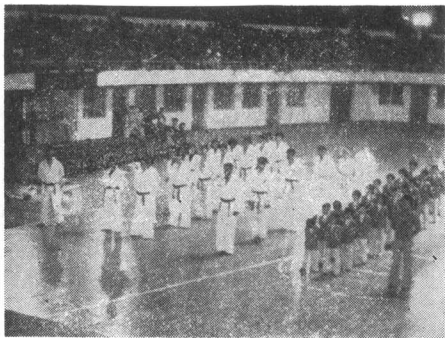
충청북도태권도협회가 주관하고 충청일보, 충북체육회가 후원한 태권도연무시범은 한국비둘기태권도시범단이 1시간동안의 태권도시범은 격파등의 시범보다는 경기로서의 시범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기본동작, 한본거루기, 겨루기등으로 연결되는 시범을 보였는데 어린이와 여자들로 구성된 시범단은 태권도의 묘기를 아낌없이 발휘하였다.

이에 앞서 청주대농여자태권도부의 시범과 외국인들의 품세 및 격파시범을 가졌는데 특히 부부가 함께 출전을 하여 겨루기시범을 보여주는 외국인은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격려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태권도의 연무시범이 끝나고 권영문사범은 그동안 각종무술 영화에서 출연하였던 태권도 장면을 연결동작으로 보여주어 관중의 흥미를 한층 더 했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육군 ○○부대를 방문한 이들 시범단은 훈련병 2,0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태권도시범을 보여주었다.

이제 태권도가 무도에서 경기로 일반의 인식을 탈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경기와 시범이 보여지고 있지만 서울을 떠난 지방에서의 이러한 성공적인 관객동원은 태권도 경기인구의 지변확대는 물론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을 일반 관중에게 보여줄수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범경기에 있어 유료입장



(만여명이 운집한 실내체육관에서 입장식전경)



(군부대위문시범에서 기본동작을 보여주고있다)

수입을 지방체육진흥에 기금으로 한 충북태권도협회와 한국비둘기태권도시범단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끝없는 정진이 있기를 기원한다……(洪)

우리말 순화운동에 앞장서는 태권도인이 되자

金 世 楠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어순화운동은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호응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우리말을 외래어의 홍수 속에서 구출해 보자는 범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해방과 더불어 갑자기 밀어 닥치는 서구 문명의 조류는 우리의 생활관습과 사고를 혼동케 하였다. 특히 언어에 있어서는 외래어의 표기가 마치 지식인의 척도인양 잘못 인식돼 어떠한 강연회 등에서나 학술발표회에서는 쓰기 쉬운 외래어는 간간히 섞여야만 강연인사의 지식수준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일반인의 생각이 통념처럼 되고 말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종 간판은 물론 상표에 있어서는 외래어의 표기가 자연스러워 겹으며 오히려 우리말 상표나 상호는 이들 외래어 사용의 상품이나 상호에는 뒤지는 품질의 인상까지 받게 되었다. 새로이 등장하는 커다란 상점의 상호는 유럽의 어느 도시명을 옮겨와야 그곳 상점의 인상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양 앞을 다투고 있었다. 외래어 표기의 상점을 눈여겨 볼양이면 마치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외래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외래어를 추방하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우리 인간이 사물을 보는 고정관념에서 하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를때 잠시의 혼동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이 전

연 다른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표기될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말의 순화운동에 열을 올릴때 우리 태권도의 용어를 살펴보면 모두가 우리말로 되어있다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껴본다. 태권도가 용어를 통일하기는 불과 15년 남짓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용어가 순수한 우리말로 되어 있고 품세등의 용어에서는 한자표기도 불가능한 용어가 수두룩하다. 당시 이러한 용어제정에 있어 일각에서는 신선탐 이전에 세계로 향

한 태권도의 앞날을 위해서는 너무 보수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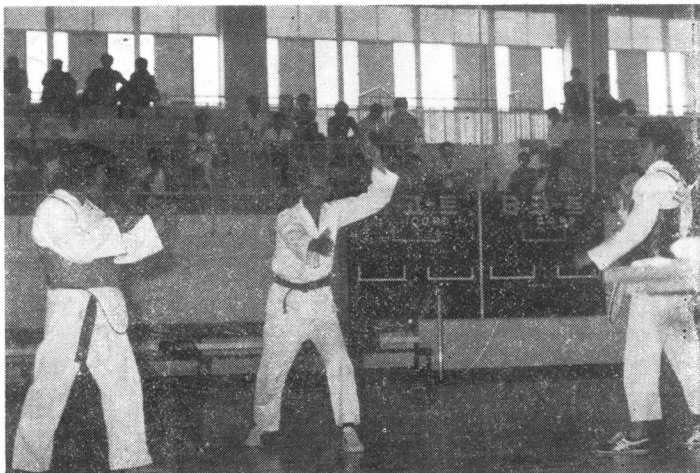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이 늘 상용되고 더우기 해외에서까지 통용되고 있는 지금은 하나도 어색한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해외 태권도사범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각종 경기의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고 있어 독자들은 다소어리궁절하며 경기의 진가를 다할 수 없는 아쉬움이있다고는하나 시간이 흐름으로서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태권도인들은 우리의 것만 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잘 이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방관을 하지 말고 우리주위의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외래어를 추방하는데 앞장서는 태권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갈려 품세 품통막기
겨루기 손날막기
주위 제비품은요
외산틀기막기 품

Match Rules of Taekwondo



Established on November 3, 1962 and amended four times, the rules contain 14 articles.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competition rules amended on February 5, 1974.

Taekwondo competitions are conducted in 3 rounds of 2 minutes each with 30 seconds recess between rounds. "Hogoo" (Protective Safeguard) developed by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1960 and licensed by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is mandatory in all sanctioned contest.

There are ten weight class: 1. (under to 48kg), 2. (48kg~52kg), 3. (52kg~56kg), 4. (56kg~60kg), 5. (60kg~64kg), 6. (64kg~69kg), 7. (69kg~74kg), 8. (74kg~79kg), 9. (79kg~85kg), and 10. (over 85kg).

Match is decided by scoring point system under supervision of 1 Chief referee, 4 Corner referees and 2 Juries. Taekwondo court is 54 square metres Court for children is 49 square meters.

1. Officials shall include one chief referee, 4 deputy referees and 2 juries (or 1 ju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2. The referee certified as 4th Dan black belt or over by the

KukKiwon must have passed the examination qualifying as referee. They must have no record of punitive measures by the Association or any other sports organization.

The chief referee is chosen from among the senior members and must have a higher grade of Dan than the Assistant referees.

The jury is selected from among the men of the 6th Dan or over.

3. The chief referee declares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of the competition.

The assistant referees record warning, winning and losing points on the scoring paper immediately.

The jury must immediately render judgement of any error made by the referees.

Velid score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1. Single attack by fist in perfect posture will be scored.

a) Successful attack on solar plexus, flanks or belly by fist scores 1 point.

2. Single attack by foot (the instep, axis, heel or footknife) in perfect posture will be scored.

a) Successful attack on solar plexus, flanks or belly by foot scores 1 point.

b) Successful attack on the face by foot scores 2 points when the opponent staggers by the hit.

c) Successful attack on the face by foot scores 1 point when the opponent does not stagger in spite of the hit.

3. Successful attack on any part of the opponent except the private parts scores 1 point when the opponent falls by the hit.

4. The following attacks will not be scored:

a) Holding the opponent or falling down after the effective attack by fist or 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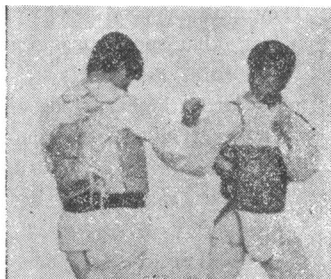
b) Continued attacking clinching form.

Deduction of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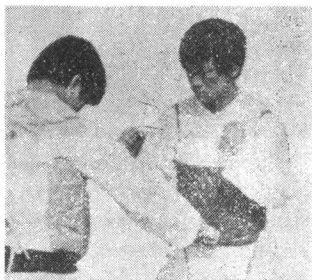
1. Attacking the fallen oppon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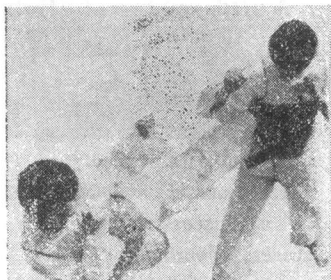
Attack on the solar Plexus by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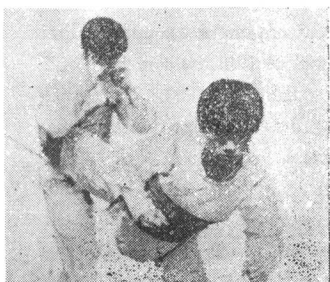
Attack on the flanks by f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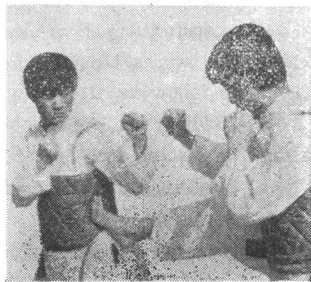
Attack on the belly by fist



Attack on the flanks by side kick (foot)



Attack on the flanks by heel



Attack on the belly by front ax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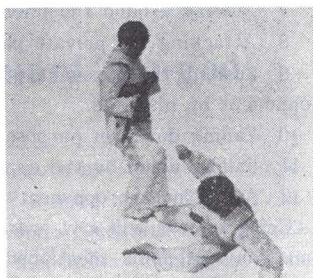
Attack on the face by round front axis



Attack on the face by round k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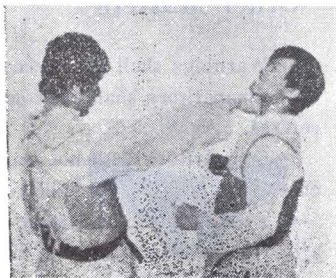
Attack on the face by side kick



Attack on the fallen opponent by foot



Attack on the fallen opponent by fist



Injuring the opponent's face by fist attack

2. Injuring the opponent's face by fist attack.
3. Butting.
4. Intentional attack after the declaration of "Karyo" (Break) Order.

Warning

1. Holding an opponent.
2. Escaping from fighting by showing his back to his opponent.
3. Getting out of boundary line.
4. Throwing the opponent down.
5. Attacking with knee.
6. Pretending a pain.
7. Moving around the line.
8. Attacking the private parts.
9. Pushing the opponent with his shoulder or body or pushing the opponent by his hand.
10. Falling down on purpose.
11. Falling down by the opponent's pushing foot.
12. Attacking the opponent's face with fist.

Chief referee will give warning to the competitor when he commits any of fouls mentioned above. Deduction of 1 point shall be declared to the competitor when he gets the same warning twice in a round.

Other Matters

1. Warnings shall not be counted in grand total but in each round.
2. Competitors shall obey unconditionally the instructions of chief referee.
3. Competitors shall not leave their position until the announcement of the decision by chief referee.
4. Even an effective attack becomes void when executed right after the announcement of "Karyo" (Break) order.
5. If a competitor quits during a competition, he shall be considered as defeated.

6. A competitor who gets three deduction of points shall be defeated by penal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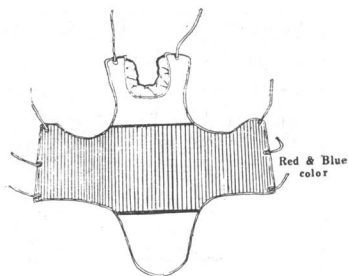
7. In case chief referee or assistant referee incur disgrace to the prestige of the committee by misjudgement in his duty as referee the jury can report him to the council to give him the following punishment.

- a) Warning
- b) Suspension of qualification
- c) Deprivation of qualification.

8. In case of dissents over decision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competition, the coach and manager shall submit a formal complaint to the council, However, oral complints shall not be accepted.

Diagram of Safe-guard (Ho-g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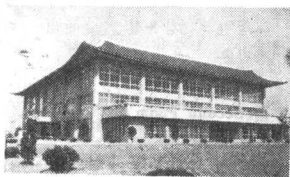
Safe-guards are protective garments worn by Taekwondo competitors. These have been developped and licensed by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d World Taekwondo Federation to protect competitors from serious injury, and theiruse is mandatory in all sanctioned contests or exhibitions by the rules of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Vital parts of the body are protected by the special garments and protection device as illustrated below.



태순양

최경철





국기원 승품심사

합격자 명단

Promotion test for Poom at
Kukkiwon list of those passed

제47회 승품심사 합격자(76년 2월 8일)

(The 47th Poom promotion test)

1 품(First Poom)

안우현	朴洪基	김일성	張仁根	문병운
金鎮湖	김상남	김진용	邊基鎬	허용범
金魯悅	임양진	金承會	姜起成	李朱彬
김영석	강우상	金錫和	金泰雄	李燦求
金成元	이승준	李起龍	金亨俊	정민용
李昌桓	宋承原	이제동	吳京錫	李成基
李俊鴻	劉政煒	曹永旼	金相均	김홍식
현인선	강지상	한혜원	金成洙	김태성
劉永春	장재혁	姜炯碩	황영훈	심종락
金大永	장후식	李晩雨	진길장	나상호
김태형	陸昇煥	김창범	박상범	장지안
장석순	李彰培	윤철민	이한옥	金孝俊
이세진	李炳燾	김성준	趙容佑	成永權
박진철	鄭廷鈺	김영하	임영선	金度植
황승주	姜東昊	尹泰鍾	劉興守	桂鍾郁
全興澤	俞丁在	金庚石	전석용	尹準培
孔勝昱	김세형	金永鎬	임일순	조재석
이지옥	朴健필	백정현	趙俊照	白雲皓
정원옥	趙成學	이종옥	柳光源	朱宰成
김배중	김영래	이하성	洪聖敦	정연식
宋光燮	안중훈	김용민	민형준	최영진

한성옥	許元碩	김덕환	黃圭泰	신우식
金洪均	金東逸	최상홍	金誠勤	李泰훈
金容奭	金兄權	정현배	황용수	정현덕
金東一	유중희	김재승	김민석	백경현
朴盛찬	丁鳳柱	南相統	김종근	김종경
金杞祐	천승민	金昌完	朴允定	김정혁
李龍帝	박용호	金環圭	金大旺	金命俊
許俊	金泰俊	金大仁	禹濟錫	金政煥
정주호	윤재훈	姜秉鎔	李海東	蔡正根
김재영	박은우	任泰淳	윤성혁	김채웅
박재완	노기남	李起秀	서정원	송영록
朴俊會	신현재	원인석	강태석	洪載完
차인호	강용선	오명수	金鉉虎	尹煥榮
李相九	金東元	박종근	趙碩照	황영석
이기성	서용록	金哲淪	정홍열	李在萬
박영수	崔虎永	金麗弘	金虎鉉	김지환
朴魯一	俞炳圭	郭東河	홍기훈	金啓林
이상구	盧勇昊	김경수	Larry R. Catron	
曹道天	金敦會	金宅洙	정창식	박봉균
崔泰鉉	陳淸龍	이창로	이창주	고정호
李奇俊	朴哲	郭謹豪	이명범	河凡
정수	金在準	이영복	李蔡浩	김석진
柳露然	文載成	成淮模	朴元亨	
姜鍾善	원형오	이진수	주영준	

박창언	라종택	孫相晩	김은성	이진국	洪碩基	김세훈	金德根	최영재	陳相喆
박상언	김윤석	洪鍾吉	金洪稷	나종인	이정원	徐廷姬	정재훈	具滋鮮	한치녕
李景植	조 선	金鍾洙	김상범	최종훈	崔在雄	이승엽	김민규	한동석	金德俊
徐東秀	趙泰照	金鍾旻	이규철	朱丙根	이영민	고정환	김유진	金衡源	이은권
林文煥	崔在鎔	김태윤	조영선	임승빈	신광설	장정훈			
曹奎重	金基南	이태희	이영렬	安善千					
金秀光	朴宰用	성준모	이상호	韓友盛					
金水一	도성탁	黃煥淳	정혁기	이 준					
姜鍾弼	申 勳	조광현	李鍾照	임영준	徐成齊	申仁均	김홍준	朴基晶	朴昌煥
명준모	진용환	李坡範	張교誠	閔相基	조항노	박상호	김광진	嚴泰龍	김호성
李秉澤	배기환	전종환	金炯碩	朴祐廷	박지홍	張好英	김한성	박창진	최용진
金政郁	洪政均	오한상	姜鎭湖	姜鎭湖	咸昌秀	朴鍾奎	서대원	임주식	鄭恩承
安琰水	柳成勳	金倫優	신현진	박용석	박영복	김재환	崔鍾文	金容奭	賀淑仁
朴淸佑	金載翊	鄭炳瓊	金仁洙	조형학	정의식	윤명현	조지환	김한구	金大植
柳立峻	李奇永	양영호	崔榮善	신형철	韓相哲	장지호	李炳夏	송무열	김한주
이재우	姜秉權	沈明均	吳泉林	朴性賢	金永洙	李炳采	崔大賢	金基夢	黃寅根
김윤일	임정재	權成奇	신병철	김재승	윤용한	申泰煥	이진원	김성구	宋鄉喆
남기성	최동환	신현민	한병철	허 훈	최안석	김휘성	박중혁	이재식	金東炫
신창욱	李景愛	鄭政敎	김정섭	공수현	최명훈	정영호	채종문	郭潤吉	黃 振
황성민	禹大根	黃尙範	배진선	張鎭件	최동인	郭運連	이문수	유운식	한동섭
배근호	尹英善	박홍철	한용열	金志衡	이영호				
姜大洙	朴元圭	장주관	황성상	정치영					
엄기혁	柳志淑	유락하	金在斗	김정매					
김범석	崔明洙	李尙朴	李鎭鎬	金昊性					
宋大永	千雲弼	金秉준	李弘寧	朴容煜					
한승완	鄭明國	김한호	朴哉昊	이상현					

2 품(Second Poom)

3 품(Third Poom)

제48회 승품심사 합격자(76년 3월 14일)

(The 48th Poom promotion test)

1 품(First Poom)

윤상기	성연호	張基讚	김형곤	朴鎭成
엄태협	趙宰均	尹榮宗	俞 燦	金泰亨
金炫一	박성환	양윤호	이동진	간덕기
정병욱	김경섭	이찬재	정은선	송현석
이한동	김준서	金大煥	진준배	양재성
鄭水煥	최용수	金世燦	金信赫	劉鍾寬

라병호	박현성	朴一澤	安鎭晟	徐旼載
許 鍵	裴圭運	유승식	장 혁	吳日煥
최경욱	노승욱	이의동	박민호	임조순
이승준	千勝珍	朴英준	박찬우	金鍾賢
정준모	張乎光	김정렬	朴仁鎬	박종은
연상혁	朴京姬	朴鍾勳	李雨燮	김교성
이승현	한원경	황성욱	김성일	신진철
이해영	林昌奎	강명구	李炳潤	金炳華
徐弘烈	林東賢	지병현	이승희	김우진

김진영	김태진	유승엽	권중배	柳益洙	宋在雲	金鍾憲	유윤중	許東翰	尹載範
남궁대식	朴泰根	김규섭	정은재	모병모	李洗鍾	오창훈	崔燦奎	임홍순	申奉圭
金鍾浩	박수권	韓基成	김형주	이성배	李慶根	朴光一	趙基元	李潤錫	김상호
이종일	박영진	박승선	신승운	崔盛敦	河泰碩	이관호	蔡元泰	정재훈	崔哲
서장원	曹明煥	정철오	최해철	徐載權	신성호	김경섭	김준철	변의원	金日顯
박충근	申海星	崔弼洙	이홍섭	金泰均	金熙錫	閔性寓	申東鎬	南承勳	오덕균
유혁상	具滋畚	龍漢哲	俞東基	박재한	李世一	원상영	김의식	경재호	민성기
白雲鶴	李應森	鄭棟元	徐漢春	全廣培	이종상	朴健亨	申東權	鄭恩鎔	宋章源
尹勝載	박철중	嚴太鴻	박철준	백현진	이성근	안병훈	金宰弘	박승욱	박혁진
林順煥	김신두	유성열	정기준	최웅석	이인식	유진우	전상훈	전바름	김선욱
이용석	朴喜道	李廷祐	金勳培	강관호	홍춘집	朴峰圭	남기영	李鎔澤	김세영
김기웅	황상현	李彰鎬	朴宰寬	윤삼현	신동화	김영곤	고정길	박용완	徐晟根
박정호	변인중	李章旭	전진욱	沈正七	이홍수	이영수	박준희	이정수	이정원
한선용	강대혁	姜棹執	林炳俊	최호호	장대성	정영호	박정재	김승태	秋成玟
辛聖洙	李在城	유용수	김진하	박우현	김일진	구자영	김강호	이강석	박훈주
이정재	李熾準	박재영	金鍾潤	장우일	邊永敏	한제규	윤정현	이문옥	백인천
이성욱	金文培	杜漢承	이정현	姜兌和	양만주	윤우철	曹東堧	金相潤	정참욱
윤종관	韓鎭承	김유경	白哲玟	金萬英	신종엽	이선희	오명재	김예권	송지현
吳大煥	박상운	崔晉源	이동근	朴柱元	배철수	崔宰榮	김현	安鎬濬	유순길
裴峽基	金峻培	문운오	李民在	박재완	정승호	권훈	崔勝景	정일참	金相範
黃畧煥	김경찬	이성진	이민규	徐鍾培	이영삼	金萬	변의영	全佐鎭	朴天規
金載東	임종택	安信烈	이강민	배삼석	편무선	허정환	金至會	박형철	이훈
김영훈	朴忠洙	이명숙	박원만	김한	尹昌浩	金起漢	양민우	김민석	홍영식
임연민	양현모	최용찬	황승주	배은경	이관사	김만식	박무혁	都亨洛	장기진
姜丁求	林大鉉	차동진	李明燮	金銀紀	윤여백	조재철	李丙旭	이광섭	장인우
배범석	박동식	崔碩栽	金鎭成	김준호	柳信	金聖哲	진병렬	조향민	정만기
白英在	金成泰	崔振虎	이승엽	허태일	宋敎範	김영식	오창우	이승중	최성국
이동규	金龍顯	金珍榮	유정환	田弼勸	유대현	이상현	주진욱	정종훈	鄭桓周
신민수	柳濟煥	방정열	이주현	鄭基太	金泰完	권정주	문정준	원종석	권순만
정옥희	구준서	양희석	尹榮彩	박보현	李東涉	왕종성	백현중	沈常駿	李東奎
김도엽	朴範首	최원영	朴純鏞	이광재	이상철	박동昱	박운중	임종일	이상하
韓鍾萬	辛元根	趙慶洙	정두연	李泰勳	유형식	이정형	노종렬	허영권	宋進復
姜延武	申洋熙	김승업	姜鐵永	李錫憲	허진호	서승원	구본진	김철호	이형근
高榮鶴	백진현	金正錫	金元錫	崔形光	오세창	김경환	김정환	이운진	최두고
김영선	黃大元	박민수	金弘千	최창해	유태길	전광천	尹春根	배병기	張元泰
廉弘燮	김광민	鄭鎬聖	柳錫鉉	林大煥	朴興宰	이동훈	丁榮奎	이우석	송광수
裴廷孝	吳庚鍾	김성우	白盛皓	崔殷豪	김영문	이용범	이병열	신재승	김경태
金인洙	정명수	玄柄喆	조현철	박상혁	박기태	최국환	申翰承	김충석	김용수
金鐵九	白雲化	김성완	백운재	박윤배	전진성	김현철	김상현	변영식	안세광
최웅석	朴聖旭	김기열	정희승	박동규	오대성	김수복	오형식	윤화섭	강선경

박민철	高光均	이상록	최성준	최현준	林相沅	김재현	백혜승	박주형	김정호
신혁순	윤장연	박병훈	林聖洙	김도영	高昶熏	姜仁敦	權聖煥	權聖千	백인혁
백진일	宋修昊	허재영	홍명구	정현준	김석원	김만희	유지훈		
金判鉉	안득기	김봉규	이재필	韓正基					
김영로	홍성철	宋準鏞	朴成皓	김태유					
정순호	박성천	고성준	조성극	박종위					
이창원	최항준	이성운	박재상	曹圭錫	유태영	강신옥	김현진	徐昌源	金成九
김정훈	김영환	通相瀚	柳明善	박은성	趙鎭赫	황철환	李世柱	이재호	편상현
송형주	金厚植	柳昌善	맹기호	이종수	姜盛弼	金容範	윤진양	방영수	金一謙
丁海雄	조동석	최일수	임병수	金哲埈	장규수	이희현	李鍾烈	李勝順	강재웅
유우식	이준효	이종호	김연태	남유희	이병만	김한주	최동운	강필성	방정열
金星一	이해열	김용조	盧承載	朴祐永	金恒緒	하동욱	윤광호	안기홍	徐水源
유찬진	김철암	이홍선	이동원	이훈창	엄상호	曹尙佑	황정성	吳浩基	추병조
鄭鍾友	오구석	이세경	김정래	김대영	河尙秀	李文淳	林承鎬	金容成	유진현
崔秉春	이정원	고석기	이형기	陳智秀	소형섭	송윤수	黃善球	金炳碩	이심주
이은정	朴鐵勝	이해창	정문재	黃駿夏	이장규	오영주	안정배	김윤기	李榮浩
송정훈	윤상문	金鉉錫	崔允榮	김한국	주지혜	최주한	朴貴男	최병철	윤지선
이영우	成昌鏞	禹濟勳	정인식	공준식	崔龍國	劉泳秀	김재권	전성철	金一相
이병국	이해경	홍기현	박태선	이용희	김영호	姜承圭	김준한	朴慶培	金昌熙
박태성	이명주	金完植	裴貞敏	박비하	金炯錫	崔元均	南聖鉉	이성환	俞善榮
朴英善	尹柱勳	權順晚	鄧修昌	나규진	문용석	이영석	김승배	崔相洛	金文楨
김찬영	김국희	金斗萬	임영수	權炳斗	이재호	이성원	李承倍	朴智鴻	김휴경
강신근	이상윤	이병철	김형진	김창수	양대승	金東守	朴竣燮	이창현	강호진
육성일	김학균	김창구	이정우	박진용	이봉수	沈宰煜	馬明壽	徐興錫	金建碩
이명재	이동학	김종배	이상범	배성훈	김현준	김기옥	남대성	張榮純	정범주
홍성호	윤창원	정창훈	李基德	박석문	姜明求	오창용	이태희	洪載鎬	유순현
구삼중	尹在喆	池昌達	김현준	이영철	姜勳	趙誠源	金滋鄉	이성철	박천용
池東昱	최은철	田宇鎭	안영기	吳世昌	이용만	文章碩	元鍾碩	朴文圭	張大虎
임종형	심준보	李明穆	조용균	장동욱	裴元赫	金容均	정혁근	박종석	박주일
홍성정	김장환	박찬준	조민교	김명섭					
최운석	김용욱	南範祐	김태엽	이동훈					
이정훈	송광국	황길수	權鍾憲	임상만	신재영	金性完	元炫植		

2 품(Second Poom)

3 품(Third Poom)

제49회 승품심사 합격자(76년 4월 11일) (The 49th Poom promotion test)

1 품(First Poom)

金泰榮 이봉춘 千義東 최익수 이용길

陸珍浩 윤준노 李禎宣 홍봉기 김창환
추민호 김명상 손경현 박상도 이윤길
정학재 黃永煥 조경호 문장용 朴燦陽

합격자 명단

NAME OF LIST

노영진	곽종우	김동성	최승원	임정훈	황범철	이재덕	李鎭赫	정 만	박창균
박상진	전정호	황규삼	문창원	이경호	배승조	조성용	金範俊	洪上熹	윤석명
양영진	최길호	김의곤	金亨燮	김기웅	朴學修	최승우	이재석	鄭恩先	이송학
이정희	任容彬	김진철	변상진	金定旭	김성근	차용운	朴英吉	權五信	장원일
김문규	金承煜	김훈나	정성용	安元圭	송경호	최석기	柳俊浩	김경환	박지용
장재환	전재용	이종혁	송수웅	高旻禾	李振圭	두지철	김철웅	이권태	吳承遠
이우규	정우철	徐東元	오택범	오정일	소병기	정학준	권순호	權赫在	이찬호
천광운	이태균	강차욱	손재윤	朱相濤	李明珩	김상수	윤선양	문구연	卜堯燮
黃大植	王喆元	崔雲晨	李東雨	吳世榮	金京泰	김광범	나선덕	梁憲模	추연남
孫斗院	金學元	白承翰	김재인	吳世榮	이성진	李省勳	김용석	서창원	白日善
정용태	朴丁鎬	宋泳範	임치영	李龍淵	南 赫	한명철	신희봉	金東民	최길완
김창원	孫泰瑞	박관배	서기원	李再哲	김재익	전승엽	白敬鉉	이승민	宋仁普
元裕集	임진영	김국현	許正鉉	金 郁	조형우	방민석	김광수	김진한	민관기
송영오	全佑鎭	김양하	李盛勳	許昌鉉	김경수	양범석	왕승규	정재호	具旼炯
崔在畧	李圭弘	김매지	김성재	申相京	吳明錫	김기석	박태동	김재욱	성준환
金眩泰	白承翰	崔時永	조만수	孫皓誠	박상준	신용택	黃仁德	김형석	홍준용
李基容	임철민	李相仁	金成珪	박성순	이준상	박영록	김윤구	천중환	김경필
鄭裕永	姜東佑	배진호	趙金九	김동준	손석호	김정규	박철용	이용주	朱宰學
權相勳	權虔祥	백승재	成賢九	李載源	李亨奎	黃榮奎	이태훈	신경성	윤동현
金洛宜	金奎晚	朴俊浩	金旼奎	趙亨紀	김기백	이종혁	정희진	조용래	趙盛準
文秉淵	김효목	吳世元	崔學鏞	정운호	趙容範	이병철	서정학	李晟準	백승일
명유진	鄭基欽	노재문	徐廷淵	변석호	禹成煒	최규남	이재진	이용진	宋明奎
이강용	姜東奎	李民宰	尹 道	석환주	徐源皓	林東元	이주인	김진우	이관희
임동혁	梁宰源	김종수	李宰源	李東遠	홍광호	李晟豪	李吉重	金玉均	南盛皓
배재학	허우상	이수길	박태완	尹成準	윤상열	임현호	李鍾河	김현석	李大逸
황덕현	李承遠	임준영	장기완	윤일중	박송환	崔景錄	신형준	김정현	이장원
朴鍾漢	金承郁	정찬우	정승훈	김석원	윤의석	李相爽	연민흠	이준상	金亨駿
金在浚	辛明宰	韓彰範	차성진	尹根浩	吉勇奎	李炫鎬	金廷勳	尹德明	金康來
金在範	이태호	유광현	이승우	卞載鍾	남상우	金明九	김차석	李相奎	이재필
李玉太	박범진	崔鍾皓	유충열	최강현	劉吳鍾	劉吳鍾	윤기배	朴元錫	이 환
강현준	劉文成	黃楠淳	이백호	李侍祐	김태수	李宗洙	이준호	李聖俊	金榮洛
徐承喆	윤필성	정성호	韓佑宗	김상겸	이승무	김현철	金 甲	차재혁	김영진
김명만	尹炳烈	김재환	黃泓哲	조철호	李章旭	李濬照	신동우	羅仁洙	曹龍權
한종철	呂煥郁	李斗鉉	정수진	尹馨涉	윤재흠	장중진	尹吉重	이한길	金建杓
朴光里	노승익	윤여휘	한성준	鄭亮基	송관호	皇甫尙佑	박종철	김현태	한준희
朴烽根	이영주	李昇烈	이의승	박상호	韓康根	정홍민	崔裕根	張擇秀	정태성
이민철	안병훈	吳世庸	양정규	정찬우	김상옥	金鍾基	진호연	조두오	李鍾喆
金燦鎬	이승호	강경진	金銀祥	홍완석	孫倫鍾	김동주	朴柱奭	李成鎬	이진욱
전종욱	정석구	金永錫	李吉鏞	吳在燦	박국성	李志享	김경중	정진성	한창식
조승천	李汎碩	이봉규	유상진	李成民	김영훈	박만성	유권수	張敏錫	민경천

합격자 명단 NAME OF LIST

권오운	金鐵洙	黃銀顯	채영삼	韓圭泰	金辰模	방준호	양선준	박진	김연태
양재동	강승수	이상기	유종곤	이승재	박상도	양연식	안선후	崔哲煥	崔鍾成
박종안	김한성	강웅진	정종화	정국훈	김종우	安淳先	신성남	鞠進性	吳英煥
崔然惜	전현섭	김영준	太秀允	정유석	유영철	白瑠鉉	고성호	김준한	엄재영
이상복	김진수	정용석	신창용	김준기	金賢秀	박효범	김형호	백락원	권태현
黃規常	泰在完	김민수	朴寶泳	최원철	이석원	任建彬	조남진	盧明九	서만복
吳供煥	최원서	김이수	尹汝熏	이문영	기용	김재권	劉永學	양의규	강석원
金東垣	李奇洙	이호섭	崔鍾垣	문창호	이상호	부인형	유광재	고도영	박완식
朴吉遠	이해준				김진녀	우종남	金性俊	문금철	金壯憲

2 품(Second Poom)

3 품(Third poom)

이범석	이상훈	金廷起	박민성	황완영	이정호	김준홍	박영선	吳成煥	이상민
李康壽	박상욱	任金城	박병국	정용덕					

제50회 승품심사 합격자(76년 5월 9일)
(The 50th Poom promotion test)

1 품(First Poom)

임준	송진욱	민경하	노치성	金光復	이종찬	이준호	김기범	이상호	이윤상
김일문	김황경	김효영	程元赫	정형석	남진우	李成日	김영진	柳永奭	최성옥
崔炯찬	문상호	朱祥旭	김문형	金和年	김지욱	김동영	이종선	홍성일	鄭廣律
장재영	전정우	박성준	이춘봉	咸忠植	최증철	권성구	서기환	박용궁	禹翰均
김유진	최환규	한호균	임기정	김정환	한동근	안상효	黃在盛	金容旭	이동규
안중모	진가명	오영석	朴聖燦	최경준	장호영	金大基	이항서	梁瓚鉉	강성수
高永南	金浩根	林宗昱	하태경	徐廷賢	최석영	朴晷浩	金鍾雨	고희준	鄭根彪
이민호	孫根洙	여인혜	柳濟旺	李明鎰	홍두선	李宰赫	박승근	김재학	노봉일
金相水	이재범	남상선	전민호	姜相準	양희상	강명찬	柳鎮桓	유세환	金正夏
안효진	鄭晏龍	여인우	呂勳	鮮于鎰	李炳鉉	남궁석환	金男奎	김정환	李圭晟
權宰煜	임태윤	鄭瀚九	김종언	최계옥	李敏圭	辛章旭	이창하	金載翰	남창영
박창호	신중식	안효순	김용환	임정옥	이상현	정도현	洪周杓	박영훈	권홍근
김일배	金宗秀	鄭眞和	김학성	이관주	유현석	이세원	박동우	강태학	吳倫承
宋圭亨	봉재순	박종호	윤준용	曺圭敏	한중혁	윤송필	卯昌植	金相遇	박규돈
석호영	趙駿顯	백성호	강성우	박동환	최형석	서홍규	박형상	김병환	金勝哲
김기웅	김환	李泰周	이성규	진성환	李相潤	계문성	노명환	위운탁	朴聖秀
김경호	李良揆	김영호	張任圭	李峻吉	이석준	한춘희	朴淳辰	沈一求	최창용
					윤희승	孫東福	朴世玟	吳哲祿	이우철
					李浩雄	서종록	이동기	安正根	金相鎬
					한약동	권혁호	임영태	이해룡	宋相煥

허문범	전형식	洪淳旭	박준우	노재민	황성옥	김선일	曹正鉉	강성오	이병주
이권석	강호동	鄭聖憲	김명식	오재욱	함준석	문병호	권준환	유승민	안세현
박락원	박영진	최영환	정연재	송동석	백성기	權赫珍	안상환	申政潤	李東俊
이종국	윤규노	Andrew Jarratt Stewart			안보기	金鍾薰	楊基德	尹鉉鉉	이재후
안장근	임종민	閔應泓	김효영	白永浩	成泰鉉	홍재철	金元鎮	金鎮根	李秉洙
金光一	崔承源	李在奧	韓政雨	유찬우	朴光天	權奇範	金結勳	鄭景午	김정승
李龍準	金相年	張在燦	김진오	허규희	朴鍾佑	李重殷	韓根伍	金正國	박종민
吳敏泳	趙文祥	이동윤	金聖根	鄭涼元	허동진	정진	金聖泰	박성호	남의경
車承勳	안성은	신종관	김재호	최용수	우상은	서장혁	채한병	吳仁植	전성돈
안준숙	남궁환	안지호	김옥	張儀臚	전의식	신동균	金相勳	김종걸	황호준
김성렬	이해곤	이창현	方京錫	朴章燦	이철	한상권	林南圭	오진서	이정원
김민준	秋淵綾	차길동	안승훈	경범수	이양희	홍진유	한요석	김영철	이준희
金京柱	김홍모	임윤상	장일	김현준	李熔洙	김기석	나우식	오송혁	김종민
김영훈	김상곤	김주환	김재훈	김성욱	이지현	李文俊	고창환	金東植	김진백
이훈	이석민	이해도	林漢洙	박태영	이영진	이준구	李昌勳	홍순재	서현종
장세준	안용일	김원좌	韓昇洙	민태홍	孫泳贊	민석기	지태	서예원	박노익
趙澈稷	최금성	張又永	李時溫	안용남	이종필	徐章源	이권고	李致永	
박용호	朴應俊	Sherry Hardy		김종화					
李昌熙	鄭駿熙	James Wilson	유우식						
鄭景植	우재석	김범석	李誠淵	임정만					
李基範	金正錫	김대철	최준호	이찬욱	전시교	김태업	박갑호	김진우	姜晨鎭
愼祥銀	옥기호	한희웅	임병준	장경섭	김장원	최승규	金佑澤	정병수	趙誠國
정동균	정현모	김용태	최호인	박재홍	金璟道	鄭勝均	閔丙球	辛薰	金技洙
김선희	노재경	권형준	신종우	전유공	서장연	이봉수	나익성	許珍	박태환
이도영	임경택	李天基	이인섭	張東鉉	徐憲柱	최창익	김지훈	안재민	崔智皓
조상우	김주환	河大男	홍성원	박기창	안정모	안경찬	金龍範	趙誠國	조병용
宋秀亨	조상필	李東旭	崔源景	崔成洛	李雪永	김명호	김백중	柳承完	林炯星
이안진	金根弘	이광식	김성욱	이준범	崔峯岩	정혁구	이종훈	朴在龍	張東一
이성배	변용수	허재우	김태수	김금수	李京桓	이동립	유성표	李龍世	이동우
洪源得	고석민	안철훈	車沃道	姜明坤	李鎬正	田景宇	김범준	이창원	이정현
이석배	전용준	유헌환	강우석	李祥準	조윤영	李俊衡	현하익	이훈	김현호
張鍾暖	정민호	최휘성	林熙澤	권영준	姜薰陳	황진철	이정규	최동석	李相勳
박종규	김영민	이정민	손종현	盧載承	곽종석	김만기	조정연		
朴宣姬	박진우	조상준	서유식	심상보					
金正桓	장재영	金南吉	김동진	정도윤					
김동명	金命相	김관규	정영인	오경학					
南珉	석진우	南潤	高重濟	김효동	李昊洙	李善觀	서종석	정창석	

2 품(Second Poem)

3 품(Third Poem)

국기원 승단심사

합격자 명단



Promotion test for Dan at
Kukkiwon list of those passed

제68회 승단심사 합격자(76년 2월 15일)
(The 68th Dan promotion test)

1단(First Dan)

金仁泰	韓丙玉	吳承煥	이계형	妻範政	崔潤基	李浩星	文炳大	박용선	최상태
金大容	高光昇	이연탁	갈충로	주세종	김훈배	韓佑燮	강두학	강한균	김종선
南基奭	박명수	白昌基	金奎千	金承柱	박한진	양재학	노현복	최한갑	강익정
임종대	金東洙	李容春	이강학	윤석복	윤익중	박종봉	朴曾敦	정성득	韓丙朝
李容奭	황종환	손우섭	이정호	徐勳	이언병	김일석	장봉기	남상국	노광
李亨熙	崔成永	李海連	李萬洙	오효석	黃貞雄	金煥東	咸龍浦	金榮煥	안기정
白一壽	周永弼	金甲烈	전태성	李殷洙	南庚祐	尹炳祚	金鎮鐸	김용채	吳基盛
윤근명	朴柄輪	강진용	權五哲	妻文慶	최상기	김재홍	朴淸一	백창기	盧弘壹
張錫吉	한창진	李柱희	오치섭	高洙源	이창호	崔龍石	허영구	李泰峰	신승하
李勳吉	朴明或	임채홍	李東旭	유언복	金仁錫	趙亨坤	안성준	李秉九	박형수
李龍洙	김형진	都鏡祿	李允遠	桂彰奭	조석희	金仁錫	王國發	이건세	李成雨
任永淳	金東植	조원구	尹宗吳	金全植	김동소	鄭在弘	金相基	金相宅	김동국
이정우	채수복	이낙기	김두식	장조순	김홍주	韓永柱	박진식	金然壽	安昌鎬
郭正壽	李明圭	朴珍求	안창남	文高宗	李鍾浩	李鍾浩	이위상	원종호	이복동
이광재	崔永國	배승철	李永杓	林澤敬	이현균	하용성	권오주	노경식	妻榮鎬
李廷建	조성연	羅浩淵	金祿成	허송무	하용성	金容喆	鄭東춘	宋廷植	김진옥
趙準行	신근섭	조명운	한강오	최익성	金容喆	朴憲榮	李奎學	金千萬	李基成
趙柄烈	최유립	김재수	李秉烈	한상권	공병익	李憲榮	허상봉	鄭弘秀	이주용
박기효	전현희	洪性燕	成實晶	吳在成	김영산	공병익	박창우	南正模	丁赫秀
홍종욱	沈基奉	孫成實	吳順泰	이정배	이도희	김영철	이재근	金珍產	제우성
李元植	김현중	吉利泰	林鍾喆	金鍾治	김용철	문영국	姜錫哲	강희경	金祥圭
金昌赫	朴慶濤	朴華永	서성일	韓重錫	정달문	김상일	成樂龍	白正國	양언석
李勇彬	金光대	尹東主	車古雄	김진근	呂栢瑞	金載映	金錦培	양언석	정현철

김남익	김재학	이종길	安宰賢	장 열
조경록	이주성	손일성	김은선	李相哲
高成均	김영인	金基善	오남록	권종권
조진호	朴東盛	林敬德	金鍾德	조성수
李鳳贊	안병옥	황길수	김종권	柳正一
김두원	임금동	韓基太	李昊烈	임석영
박성재	李原坤	신영수	김진군	趙永圭
邊孝信	조규진	변명호	金基奉	金光男
차경수	임종무	姜禮龍	김동선	조남오
김재두	梁吉男	朴英翼	이명세	한동석
李相千	정창석	양태철	박진호	이동희
김종균	엄완섭	金益鉉	전용옥	車炳澈
김경민	이종덕	洪龍植	김봉주	김성조
李相烈	洪忠植	김인환	서석철	김득명
윤종범	김성일	홍영선	김갑연	李東錫
강홍성	鄭喜成	김현구	유영식	권오경
金明珠	金天澤	朴榮洙	姜鉉官	朴性根
박동규	金春星	金永河	趙元元	金鍾宇
金榮南	백인석	金永龍	吳貞憲	최영식
조장수	李春浩	최경식	박해중	정한영
南相基	유창열	李瑄鎬	金學藝	宰幸佑
윤일중	김범연	장원익	安珉贊	김동현
鄭淵暎	안태근	趙成浩	韓鎭洙	俞炳采
朴元鳳	朴光熙	김종배	嚴鉉	孫英求
張榮廷	朴聖淳	정홍균	林采成	李東夏
정화성	徐忠鎭	金泰烈	김종근	유철영
徐性鎭	정진영	김영주	이영화	김영희
유경숙	洪春子	배수영	鄭榮淑	이영숙
이영자	황혜근	徐明子		

Faustino Alata

Morien Vedel Nielsen	Gregorg G. Hokmann
Julius C. White II	Gregorg L. Dunton
Larry Johnson	Michel D. Mcann
Robert J. Whelan	Cox Frans
Keni Anderson Hall	Riley Stevie Michael
Joseph D.L Kotsokoane	Vince Sanchez
Frederick W. Sherman	

김동훈	이황노	김용목	蔡洙寧	文榮玳
장두우	임현주	강동원	김무철	백정균
김성의	장성길	최상재	최성영	임상옥
崔明休	전호성	김국재	전진준	

2단 (Second Dan)

李在赫	李鍾尙	김정훈	최종호	이성석
金昶求	金範柱	김예근	朴柱澈	金東旭
박종배	오승기	金聖植	양만석	朴淳
오영종	강상욱	박진완	姜詳熙	李漢鉉
姜薰基	高太洪	안정희	高太星	金忠坤
劉弘鍾	李鎬男	윤준희	吳德潁	朴魯玟
김덕재	박준용	吳基星	김상렬	張鳳權
鄭勇吉	金明均	권순만	황상수	韓貞姬
姜映先	柳敎星	권행복	김기만	李順子
柳承一	조성진	이동호	任鍾姬	鄭正來
金辰龍	金相基	이광진	崔性秀	金弘培
Michael B. Daniels	송마침	김현철	이상인	윤영수
조경문	김용길	박돌수	오미라	윤영희
정기현	김상기	김한성	권병조	박창희
김삼봉	이명식	김용운	신태복	최복진
김창제	이석준	조중기	홍진수	金載德

3단 (Third Dan)

형남수	전웅수	金炳容	林守龍	河憲雨
千璣大	李熙律	강석규	金映秀	박원
李秉植	朴舜浩	지덕경	金潤泰	李安順
黃大成	李鍾鎭	崔載天	蔡斗熙	白信基
장종욱	고금영	최도원	최덕환	조승기
申義湜	申東柱	윤병진		

4단 (Fourth Dan)

강문형	鄭義明	김용계	襄德富	曹永培
李熙元	李尙憲	강순정	은상기	이상열
이종관	이제일	안문영	李善雨	金亨俊
金鍾聲	慕容一	趙月鎬	강주복	金炯暢
崔正秀	鄭敏秀	부철언	朴武雄	徐光石
李甲燮	趙石珍	郭仁相	李承卓	오용해
林春植	김용호	尹景守	崔昌栢	이상중
梁周鎬	정원섭	김종근	李柱大	金泰明
황윤서	金斗滿	朴元相	金雲泰	金永守

南武雄	김병운	홍인화	徐鉉俊	유성대
劉德賢	김진표	高成命	趙吉龍	유석운
韓盛喆	金石煥	李源起	許東逸	홍사광
金井來	홍화자	宋敏植	이성대	차도환
劉玉子	李圭益	金永浩	吳弘均	김복식
鄭義宅	洪淳昶	차문환	蔡奎明	이재원
辛升鉉	이종중	조영중	김정태	안순용
吳壽崑	柳金春	朴晟佑	양광남	엄기용
김창학	김일경	김경수	정연성	김태명
吳大一	鄭然華	박영철	최기제	심홍택
한치섭	김경옥	金光熙	김정곤	金勇美
이만근	李光錫	張孝駿	金元錫	이원익
鄭三鉉	임희영	閔丙夏	韓正吉	李大雨
鄭春源	임치호	鄭寒源	車斗漢	襄興哲
成允慶	禹世煥	朴慶雄	김광수	연철호
이계오	김학봉	조성중	張聖昊	金源泰
金俊培	유성진	吳榮五	金진用	高桓龍
박효순	이문영	이선동	문병규	김성학
박효길	李卓遠	박만순	김찬익	오혁필
안홍열				

5단(Fifth Dan)

崔哲奎	印求顯	李樹吉	林芳春	李久雄
許天	李正煥	權寧吉	申寅植	姜聲吉
박용준				
朴萬錫	金永得	李雲宰	한영웅	朴成祚
禹燦命	황성희	李承梧	이재훈	鄭漢述
蔡漢錫	이재열	金鐵洙	李永培	金 敕

오현득	襄宗男	吳相鉉	徐延喆	任東均
崔鍾賢	이리관	朴洪培	文明鎭	李敎興
김재환	심철환	金鎔鎬	이근필	洪光烈
李宗洙	金炳龍	김광수	강병원	丁仁培
오준영	朴仁浩	金水文	김형남	金洪宙
浪光錫	都光錫	金炳度	朴成彦	申亮浩
金龍享	서형진	金洙坤	張在萬	金志煥
손원길	金忠五	崔裕植	이수천	宋善臺
박두옥	車吉勳	金鍾寶	김영일	劉鍾範
이관수	趙昊潞	朴大根	趙誠晚	朴仁一
박보양	宋鎭宗	정규만	張鉉朝	金完熙
김진중	박용환	한병호	김용수	최수한
박원배				

6단(Sixth Dan)

崔吉洙	박복길	黃勇善	李成雨	김태진
金容完	尹炯玉	千鍾國	金鍾煥	최영덕
최정권	李滿雨	金基春	정철우	鄭相圭
曹福男	김선국	朴慶鎬	金俊燮	金大成
康昌吉	金鏞八	백승길	서옥근	김영철
김 청	崔德洙	崔壽命	崔世文	朴昌吉
襄顯鎬	沈淳元	김인문	李應植	朴源雨
金榮君	金英哲	朴江龍	徐三珍	朴熙源
이원광	南到欽	李載權	趙候衡	韓德鉉
곽재영	鄭快雄	柳龍奎	진일범	선운창
서광휘	高朝煜	嚴起燮	黃甲洙	金祥河
趙준鎬	민선호	孟萬鎬		

제69회 승단심사 합격자(76년 4월 18일) (The 69th Dan Promotion test)

1단(First Dan)

유효곤	鄭雲敎	박용운	임재만	서문석
崔潤範	석명수	金賢燦	박정열	趙建完
李相根	金炳錫	방태규	장은열	李 勳

洪思永	禹鍾燮	趙東石	엄기정	金奎文
마 흥	양서호	崔廷壽	梁 源	김범수
나근호	張志喆	이명우	金吉相	양기석
박기수	姜成玢	李明鎬	권유상	최명준
朴鍾俊	朴 淳	李殷祚	주덕현	이병만
박현규	김광섭	한성용	박기현	고윤배

차형만	李大春	강창재	이경균	孔暢能	양종열	鄭仁	金勝載	鄭鉉	배경오
李啓權	金千植	金億洙	장경익	김정현	김윤태	이부관	한기현	이상용	조재근
한철원	오병환	유우근	김성호	조성호	김하경	崔鎬政	신진동	박광수	성형제
金元植	卜漢鎬	송병기	金圭玉	崔順植	방인근	고경희	전교환	문현길	윤재필
李豐德	金恩植	朴貞彬	李義文	吳洙英	洪太元	유재홍	정학동	최인선	이상일
李元燮	姜基浩	徐庸石	金哉延	金圭植	김연호	金鎭哲	박재문	金權植	선광일
徐亨碩	진천수	高錫煥	蔡順錫	高錫風	박휘영	梁在植	이동재	李啓龍	김종철
孔暢三	成勤鉉	梁俊義	崔京喜	梁洪先	김철은	宋在烈	김광삼	李成守	염운식
張在熙	宋世憲	李東哲	南基鉉	安明善	李周銀	李判九	권영기	金東植	丁鍾來
下鍾文	안광선	김기모	김문갑	安浩善	정동욱	박영도	김길용	梁在雲	백창현
박준호	최용훈	馬正昊	안준범	羅學根	崔秀宅	김진옥	池相奎	金哲重	裴聖眞
김종열	柳炳鶴	안창복	오경진	김치남	우재선	김용수	최용석	朴壽堅	金容完
심현섭	姜大學	윤석호	유돈영	신석운	김종운	高興錫	임휴양	정운영	이기복
李鍾景	文洪吉	文炳周	이정만	金承哲	유봉	김현석	신승묵	김병채	鄭志完
김성원	강춘석	송창구	정선조	양영규	김효길	柳鍾寶	姜煥國	李榮根	崔明植
趙用丘	田賢秀	李鍾文	안호영	김진호	鄭柄淵	柳志相	고병민	姜大龍	尹斗漢
이두연	趙庸泰	金光雨	林東植	文相弼	金鍾逸	延聖欽	安學基	장장교	김을식
김광진	김용택	韓龍奎	백준호	이경홍	추해광	李誠	신금원	오은섭	신문호
韓盛皓	정민관	이병호	곽현석	金圭漢	金興培	임병옥	김용우	申英秀	김안석
朴相貴	金元文	車斗運	박세만	金東明	김진수	한권수	임봉용	김종철	高玉相
윤희수	최병인	吳昌浩	金炳南	朴旻俊	한덕수	김세용	李東石	차현석	손세권
이봉래	吳道煥	서준규	朴奉烈	김장환	李炳模	이정수	채종윤	金官會	한기용
金相敦	李武永	鄭三哲	韓景秀	김영태	양홍주	陳弘城	이철환	장사길	이상현
張漢規	윤미양	이장우	吳昌益	金龍望	崔昌日	조성훈	具尙會	진완구	김동진
신병로	鄭萬成	白琮晚	최원문	김기택	鄭哲洙	진점수	진중환	최경채	金元植
김귀진	池承昌	朴成宰	김정찬	서형근	김중기	김미현	강영주	이성숙	李鍾淑
崔泰燮	조명선	이현우	김단곤	김병환	홍영순	權美敬	유순연	곽명자	김동숙
함원자	정창구	宋錫珠	채기현	印夏淵	김정애	박후남	Anneke Cox		
태범석	이승학	이영주	康準原	노현래	Warren Hardy Lee JR				
조정택	안인철	조선행	김영현	노완성	David G Barker				
文炳德	姜大日	황규찬	김봉진	朴春植	Ismar Rubio				
金榮萬	신철운	김재호	朴永一	배석철	Gregory E Dwval				
박형구	최석철	권병성	金鴻洙	심상은	Susan J Muphy				
김용배	정민석	김재인	印東植	김성호	Michael Dvdziak				
장기범	양광옥	李東竣	방극식	房文柱	Deblasis Michael				
남기호	金鍾哲	이규주	주정환	염중섭	Carl Lee Kirby				
김창열	최상선	정병은	문세창	魯龍鶴	Stagher L. Ronald				
金龍龜	신호	金漢喆	金敎秀	池大植	William Edward Hannigan				
李知洙	文載豐	홍성길	柳春烈	김홍일	David N Cooper				
김용찬	유인하	왕영갑	俞文在	鄭榮植	William S Odum				
					Timothy P Myers				
					James Edward Rogers				

2단(Second Dan)

권오철

유원국

崔永煥

인현자

朴炳允

2단(Second Dan)

권오칠 유현국崔永煥 임현자朴炳益

崔奉鉉	최명화	최문기	서봉석	허재영	강귀선	宋文憲	沈箕錫	曹基鉉	朴龍浩
朴東勳	元鍾凡	Louis M Jurney	홍승탁	홍승탁	金正埈	蘇秉熙	남상덕	朴龍洙	심종민
전요택	梁熙宰	Matthew White	최인영	최인영	金允東	河光壽	柳正根	박상호	배재희
林辰三	주경언	김규성	전병천	張鉉明	이성교	장창환	이상철	문춘태	김제식
이기봉	趙鎭燮	尹珍善	하제명	金善郁	李基浩	이상태	金正烈	김신희	趙殷俊
김규범	崔泳突	黃宗哲	이상기	金聖鍾	김용환	박상수	김영기	김진학	朴商權
林炳國	안유섭	박영환	徐聖旻	徐漢星	金煥雨	金溢浩	유태용	洪性實	朴紀運
황상욱	문용기	조용수	마옥근	金哲承	金南鎬	이세명	유규식	張泰根	김길용
이광표	주인호	洪鍾大	주광철	申德模	윤재후	崔東洙	김청미	유종준	장병호
육효준	정용주	李龍基	김상운	김진용	송세극	이상용	朴在信	김진영	이춘환
김학목	李亨萬	김영섭	한규정	신민식	유정선				
김시경	李基哲	이근욱							

3단(Third Dan)

朴鍾聲	윤기택	박태상	李賢喜	尹祐炳
정일영	최완우	이동호	김덕조	김용성
정우섭	전창숙	金國文	金孝鍾	李鎬三
김선일	金永吉	김진원	金知完	金용호
宋澤相				

4단(Fourth Dan)

朴奉珍	金明欽	서광일	석희수	박승영
金億坤	김종환	趙泰洪	이광수	한규정
김종천	김기호	김성기	元重植	송철환
문영운	姜東熏	민무식	南基林	崔豪燮
李海國	유진생	李永久	李永基	서현기
金炯善	朴榮國	吳鴻根	유영권	黃煥萬
이철우	金一洙	金彩奎	서영일	尹鍾喜
손오용	張熙奉	김경만	朴水洙	李高範
오근화	金振煥	유봉학	張九鎔	金德禹
김영호	정종호	유용종	朴喆顯	宋鎭球
이장희	임영목	金文道	田柱煥	배효길
황용구	오행곤	高奉信	林憲培	허만섭
양병구	鄭京泰	徐光植	金昌炫	문석근
吳英根	俞鎭浩	朴三東	안주태	이문호
曹秉國	배종계	김영광	이규환	이섭장
석동중	장정길	吳水福	李弼在	한주용
조과훈	成煥國	최정섭	박집철	김영철

5단(Fifth Dan)

이창규	지양호	조 훈	박대원	李昭吉
許鍾順	李吉宰	이병화	朴昌鎭	임영휘
김갑식	김찬오	김경호	李基鉉	朴鎔俊
許地會	金相烈	朴元植	梁文根	金在洙
金鎭國	명정석	閔庚大	李完榮	申和燮
崔東烈	임규용	김기준	許光福	이종태
金東燮	윤영중	南稷鉉	李根燦	김용무
魯征鎬	이경구	우종철	안희균	이정일
邪成勳	李元根	조부연	康龍文	하태관
盧壽吉	염성길	全石鎬	金浩柱	조한화
권오중	全德均	朴태병	유홍택	朴勝烈
金昌淳	申東珪	허정렬	邊正男	金且坤
김 현	金鎬鎭	廉昌燮	李元容	金炯柱
金石萬	姜武勳	韓永喆	金鍾根	姜潤豪
황용철	전용출	박순용	김성도	김태하
이재철	鄭奉三	김청이	조종경	

6단(Sixth Dan)

李英器	장재식	오명균	장기원	김영일
朴在錫	최복성	沈泓錫	최오영	趙誠澤
이동용	李泰寶	金容旼	尹聖熙	文命珠
徐重根	李龍德	金容旼	이병태	洪南滿
韓相勳	박인근	李常達	김장식	金奎滿
姜明喜	李奎鉉	權相烈	盧相錫	裴周植
鄭晉永	馬仲호	윤정현	吳賢錫	長長福
韓雨洙	金鍾源	金光成	金東喆	강용택
김현수	金鍾彦	이의빈	李重協	양요환

跆拳道 품세教室

TAEKWONDO ILLUSTRATED



제공 : 교육문화위원회

준비서기 : "I"점에서 "G"를 바라보며 기본준비서기
Spread the left foot one step sidewise and face the direction of "G"

TAE-GEUK 6 JANG

태극 6 장

태극 6장은 8괘의坎(괘파)을 응용한 동작이다.

坎은 물을 상징한다. 물은 유연하고 끊임없다. 흐르는 물은 험난한 곳을 갈때도 언제나 낮은곳으로 흘러 그 본성을 잃지않는다.

사람도 굴처럼 위험을 만나도 마음속에 굳은 신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면 능히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장의 동작은 물의 이치처럼 끊어지는 곳을 차기로 넘어가게 품세를 구성한 것이다. 이 장의 특징은 몸통바깥막기와 5동작에 있어 처음으로 손날 얼굴 막기로 몸이 제비품동작과 같이 틀어야 하는 것을 시도한데 있다.

품세선 : 坎卦(≡기호)

품수 : 19

동작수 : 31



1. 오른발 제자리 왼발 "LI"선상에 한걸음 옮겨
원앞굽이 아래막기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move the left foot to the line of "LI"

OEN-APKOOBI ARAE MAKKI

2. 왼발 제자리 오른발 앞차기를 차고 물려 제자리에 들어

오른 뒷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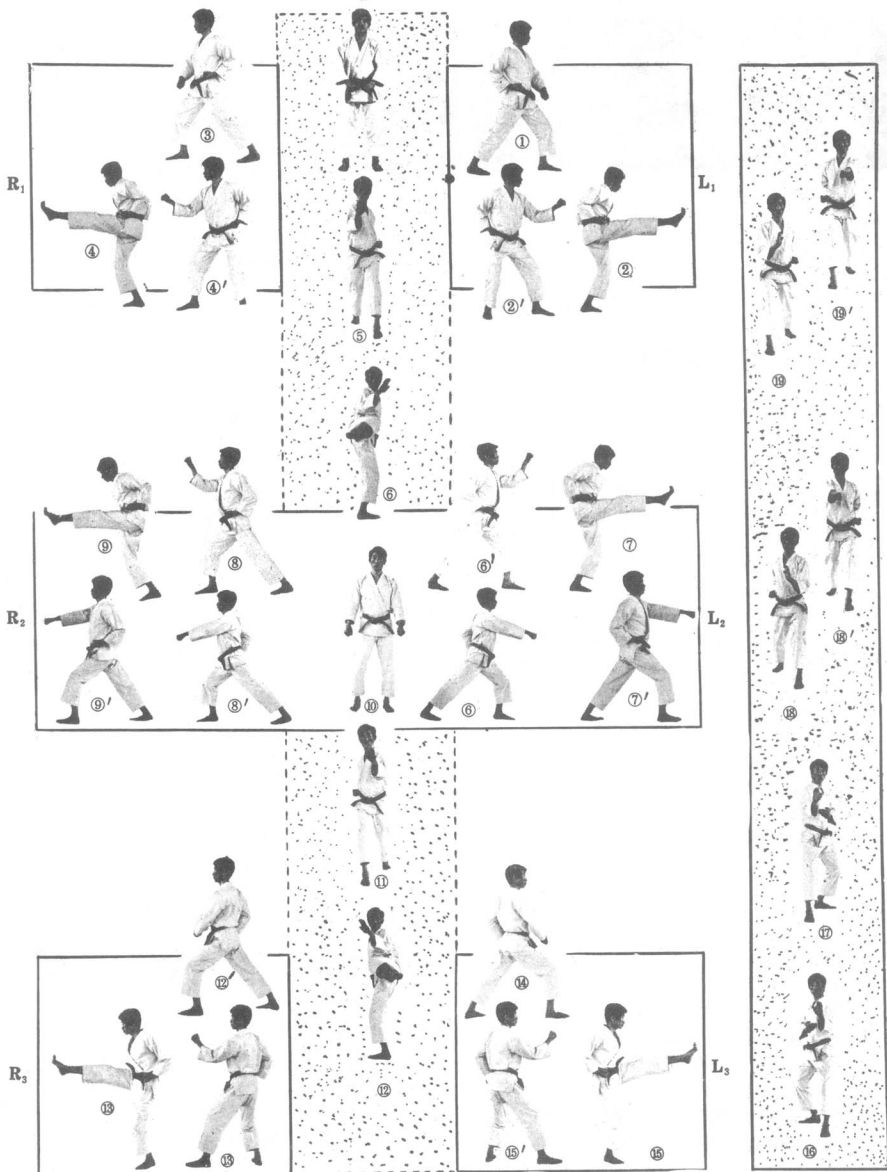
바깥팔목 몸통바깥막기

with the left foot fixed do Apchagi with the right foot and pull it to drop on the original place

OREUN-DWITKOOBI OEN-BAKAT-PALMOK
MOMTONG-BAKAT-MAKKI



I 품세진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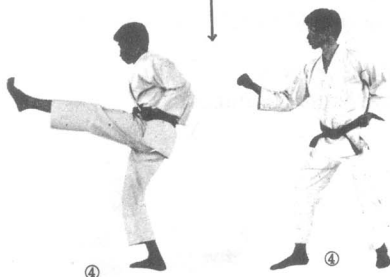


3. 왼발 제자리 몸을 "R" 방향으로 돌려

오른앞굽이로 아래막기

Keep the left foot Fixed and turn the body to the right to face the direction of "R₁"

OREUN-APKOOBI ARAE-MAKKI



4. 오른발 제자리 왼발 앞차기를 차고 불러 넣어

원뒤틀굽이

바갈팔목 몸통바갈막기

with the right foot fixed, do Apchagi with the left foot and pull it to drop on the original place.

OEN-DWITKOOBI OREUN-BAKAT PALMOK

MOMTONG BAKAT MAKKI

6. 왼발제자리 오른발 "G"방향으로 돌려차기를 하고 "G"선상에 한걸음 내려딛고 계속하여 왼발이 "L₂"

선상에 한걸음 나가

왼앞굽이로 얼굴바갈막기를하고

몸통바로지르기

Do Dollyochagi with the right foot and drop it on the line of "G"

OREUN-APKOOBI

DO IN SUCCESSION AS SOON AS STAND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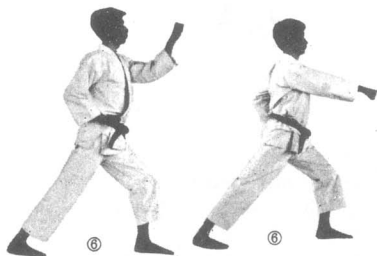
5. 오른발 제자리 왼발을 "G"선상에 한걸음 옮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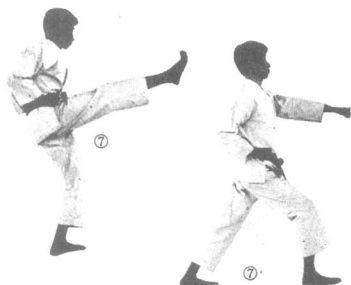
왼앞굽이 제비뽑한손날 바갈막기

Keep the right foot fixed and move the left foot one step to the line of "G"

OEN-APKOOBI JEBIPOOM-OREUN-HANSONNAL

ECLGOOL-BAKAT-MAKKI





7. 왼발 제자리 오른발 앞차기를 차고 "L₂"선상에 한 걸음 나가

오른 앞굽이 몸통바로지르기

Move the left foot one step to the line of "L₂"

ONE APKOOBI

**OEN-BAKAT-PALMOK EOLGOOL BAKAT
MAKKI AND THEN MOMTONG BARO-JIREUGI**



8. 왼발 제자리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던어

오른 앞굽이로 얼굴 바깥마기 하고 몸통 바로 지르기

Do Apchagi with the right foot and drop in (on the line of "L₂")

OREUN-APKOOBI

MOMTONG-BARO-JIREUGI



10. 오른발 제자리 몸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G"방향을 향하면서 모듬발로

편이서기하면서 아래해쳐막기

Do Apchagi with the left foot and drop in (on the line of "R₂")

OEN-APKOOBI MOMTONG-BARO-JIREUGI



9. 오른발 제자리 왼발 앞차기를 차고 "R₂"선상에 내려던어

왼앞굽이 몸통바로지르기

Do Apchagi with the right foot and drop in (on the line of "L₂")

OREUN-APKOOBI

**OREUN-BAKAT-PALMOK-EOLGOOL-BAKAT
MAKKI AND THEN MOMTONG-BAKAT-MAKKI**



11. 왼발 제자리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오른발을
“G”선상에 한걸음 내딛어

오른앞굽이

한손날 제비꿈 바깥막기

pivoting on the ball of the right foot turn the body
to the left and face the direction of “G”

PYOENHI-SEOGI ARAE HECHYO-MAK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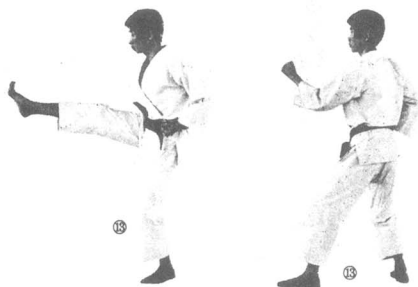
12. 오른발 제자리 왼발로 돌려차기(기합)를 차고 “G”
선상에 한걸음 내려두고 계속하여 몸을 오른쪽으
로 돌려 “L”선상에 오른발을 옮겨

오른앞굽이 아래막기

Keep the left foot fixed and move the right foot one
step to the line of “G”

OREUN-APKOOBI

JEBIPOOM-OEN-HANSONNAL BAKAT-MAKKI



13. 오른발 제자리 왼발 앞차기를 차고 물려 제자리에
닫고

왼 뒷굽이 바깥팔목 바깥막기

Do Dollyochagi with the left foot (yell) and drop it
(on the line of “G”)

OEN-APKOOBI

DO IN SUCCESSION AS SOON AS ASSUME THE
STANCE



14. 오른발 제자리 몸을 원편으로 돌려
왼 앞굽이 아래막기

Turn the body to the right and move the right foot
to the line of "L₃"

OREUN-APKOobi ARAE-MAKKI



15. 왼발제자리 오른발 앞차기 차고 물러 제자리에 딛고
오른뒷굽이 바깥팔목 바깥막기
with the right foot fixed, do Apchagi with the
left foot and pull it to drop on the original place.

OEN-DWITKOOKI

**OREUN-BAKAT PALMOK-MOMTONG-BAKAT-
-MAKKI**



17. 오른발 제자리 왼발 "I"선상에 한걸음 뒤로 물러
밀어

왼 뒷굽이 손날막기

with the left foot fixed, do Apchagi with right foot
and pull it to drop on the original place

OREUN-DWITKOOKI

**OEN-BAKAT-PALMOK-MOMTONG-BAKAT-
MAKKI**



16. 왼발 제자리 오른발을 "I"선상에 한걸음 옮겨밀어
"G"를 향하여 오른 뒷굽이 손날 막기
keep the right foot fixed and turn the body to the
left to face the direction of "R₃"

OEN-APKOobi ARAE-MAKKI



18



18

18. 왼발 제자리 오른발 "I"선상에 한걸음 뒤로 물려
던어

원앞굽이

바탕손 몸통막기를 하고 계속하여
keep the left foot fixed and move the right foot to
the line of "I" to face the direction of "G"

**OREUN-DWITKOOKI SONNAL-MOMTONG-
MAKKI**



19



19

19. 오른발 제자리 왼발 "I"선상 한걸음 뒤로 물려두고
오른앞굽이

바탕손 몸통막기를 하고 계속하여

몸통 바로지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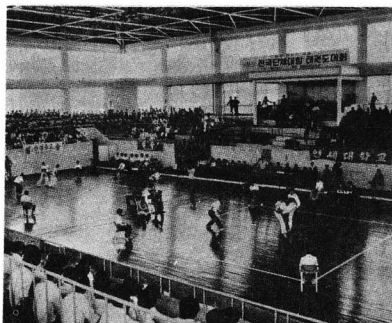
with draw the left foot (on the line of "I") and face
the direction of "G"

**OEN-DWITKOBI
SONNAL-MOMTONG-MAK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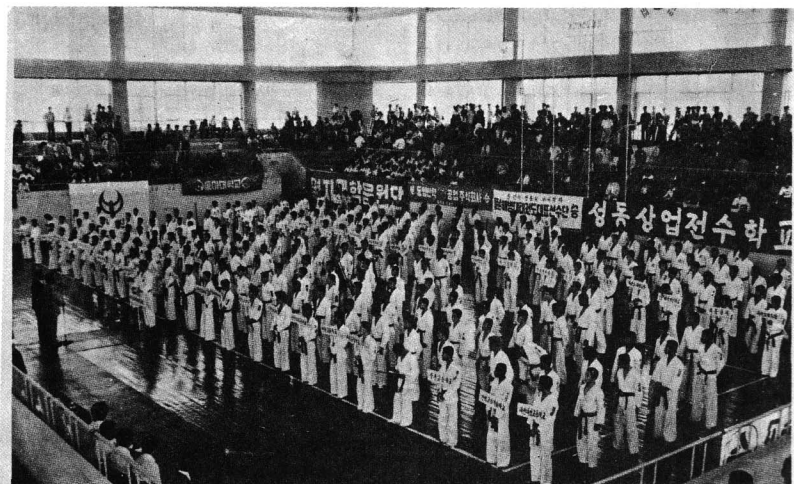
그만 : 왼발제자리 "G"를 향하여 오른발로 편이서기를
하면서 기본준비서기

대통령하사기쟁탈
제11회 전국단체대항태권도선수권대회
—The 11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초만원을 이룬 경기장 전경
Scene of Competition



일반부 23개팀, 학생부 27개팀이 출전한 입장식 전경 Opening ceremony with 50th participating te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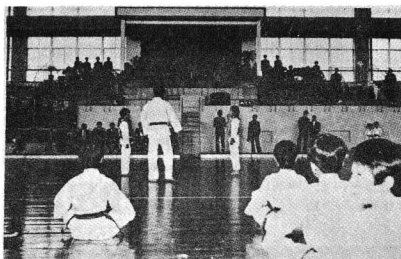


국제군인체육회 집행위원들 국기원방문



태권도 연무시범을 관람하고 있는 각국의 대표들 (위)과 겨루기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남대문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아래)

CISM Executive members visit Kukkiwon and watch Taekwondo demonstration by NamdaeMoon Primary School



국기원 도착후 기념서명

CISM Executive members are signing at the entrance of Kukkiwon upon arrival Standing in the Center is General Akuffo of Gh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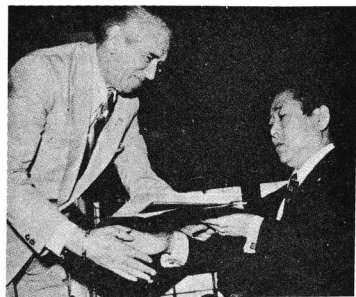
시범이 끝난후 알도, 마세리니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CISM President Admiral Massarini Malces a response.



김운용 총재로부터 국기원 명예회원증 및 명예단장을 수여받는 국제군인체육회 사무총장 Raoul Mollet씨

CISM Secretary General Raoul Mollet receives Honorary Black belt diploma from WTF President.



THE CISM EXECUTIVE COMMITTEE MEMBERS VISITED KUKKIWON

김윤용 총재로부터 국기원 명예회원증 및 명예단
장을 수여받는 각국의 대표들

CISM Executive member receive Honorary Certi-
ficate from WTF.

딕슨대령(브라질) Col. Dickson (Brazil)



페이른장군(스웨덴) Gen. Peyron (Sweden)



스미스장군(미국) Gen. Smith (USA)



뷰렛장군(스위스) Gen. Bullet (Switzerland)



아스트룩장군(프랑스) Gen. P. Astorg (France)



이스트반장군(스페인) Gen. Esteban (Spain)





미국 미조리주 매리빌리 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있는 김총재(5월 1일)

President Un Yong Kim received Honorary Doctor of Laws from Maryville College in St. Louis Missouri.

조나탄 레소토 국무총리와 인사를 교환하는 김총재이 자리에서 레소토 태권도 발전에 대해서 환담했다.

WTF President Kim visited His Excellency Le-abui Junathan, Prime Minister of the Kingdom of Lesotho at Chosun Hotel.



레소토 공화국 모하레 체신청장이 국기원을 방문 시범을 관람하고 시범단원을 격려하고 있다. (4월 28일)

Mr Albert Steerforth Mohale Minister Communication of the Kingdom of Lesotho visited Kookwon to observe Taekwondo demonstration.

제27회 세계 청소년 펜싱 선수권대회 한국 대표 선수단 단장으로 폴란드에 입국한 김총재(좌로부터 김창환 펜싱협회 부회장, 김성규 대한체육회 국제부장, 김총재, 김영길씨)

WTF President Un Yong Kim lead Korean Fencing Team to participate in World Junior Fencing Championships in Poznan Poland. (from left Chang Hwan Kim vice President of Korea Fencing Association, Sung Kyu Kim International department chief of KASA Dr. Un Yong Kim, Mr Yeong Kil Kim)

미국 시카고지역 사범들과 함께

(총재 좌편이 남태희 중부지역 회장)

Instructors in Chicago area are gathered to meet Dr. Un Yong Kim President of W.T.F. left to Dr. Kim is Mr. Nam Tae Hee South western Association President Far right is Ko Sung M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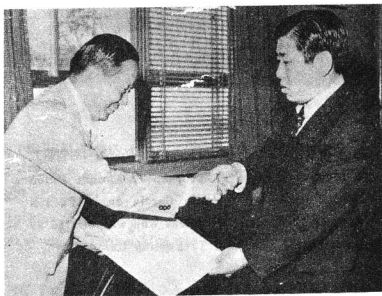


마이레스 K 렌 한미재단 부총재가 국기원을 방문
국기원명에 회원증을 받고 태권도 시범을 관람했다.
(5월 17일)

Mr. Myles K. Ren Vice President of American-KorAsian Foundation visited Kukkiwon and observed Taekwondo demonstration (17 May)

국기원을 방문한 袁國微자유중국 태권도협회장이
국기원명에 회원증 및 명예 5단을 받았다(6월 10일)

Gen. Yuan kuo Cheng, President of Republic of China Taekwondo Association visited Kukkiwon and recieved Honorary Membership Card.



에머슨, 사핀 뉴욕타임즈 외신부차장 부처가 국기
원을 방문 감사장과 국기원명에 회원증을 받았다.
(3월 18일)

Mr. Emerson Chapin New York Times visited Kukkiwon.

오스트리아 아크듀크, 어프. 폰 함스부르크 황태자
비가 국기원을 방문 기념품을 받고 태권도 시범을 관
람했다. (5월 17일)

Crown princess of Austria Arohduke Offo Von Habsburg visited Kukkiwon





제1회 구라파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는 김운용 총재

WTF President Un Yong Kim delivers congratulatory remarks as the Opening Ceremony of the First European Taekwondo Championships in Barcelona, Spain.

유럽태권도창립총회(오른쪽이 안토니오 조직위원장)
Inaugural meeting of European Taekwondo Union
(Right end is Mr. Antonio Garcia de la Fuente, Spanish Taekwondo President who was elected as President of European Taekwondo Union)



구라파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터키팀
(총재 좌측이 터키탁회장)

Turkish Team at 1st European Taekwondo Championship

(Left of WTF President is Cihat Uskan President of Turkish Association and WTF Executive Council m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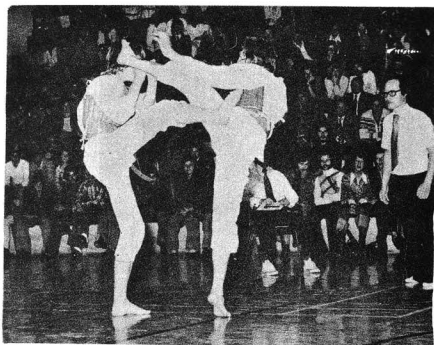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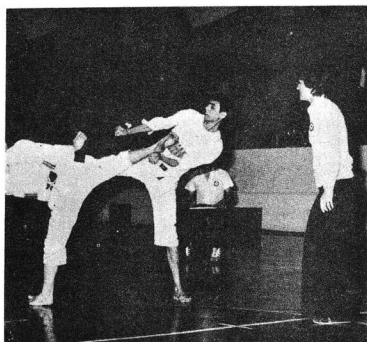
미국 미시간주의 에드워드 셀씨와 수련생들

Mr. Edward B. Sell, Taekwondo Instructor with his students in Michigan.



제 1회 유럽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오스트리아 대표선수 선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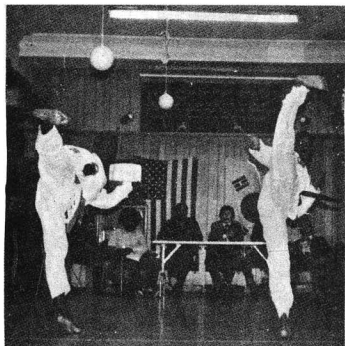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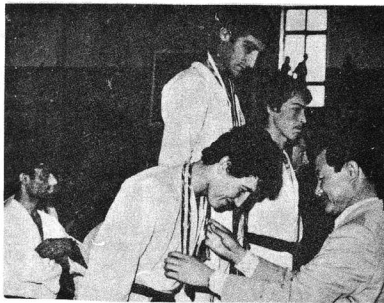
National Championship in Austria.



제 1회 유럽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터키대표 선수 선발전(위), 입상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주터키 박영철 참사.

Turkish National team for the 1st European Taekwondo Championships was Selected

Mr. Yung Chul Park, Councilor of Korean Embassy in Turkey awarded medal to the w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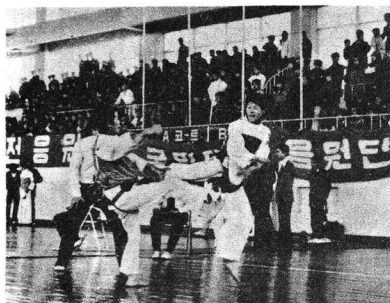
승급심사를 받고 있는 미국의 수련생들

Scene of the Geup promotion test in Washington D.C.



한, 중 친선 태권도대회에 출전하는 한국대표 김순배 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는 김희장(위) 선수 및 임원(아래)

Dr. Un Yong Kim President of the KTA awarded the Association banner to Mr. Soon Bae, Kim Head of Korean Team visiting Republic of China.



1976년도 전국 태권도 신인선수선발대회 경기장면
(준결승전)

Scene of the Competition the 1976th National Championships for new contestants (semi-final game.)

제 1기 2급 심판강습회 기념촬영(3월 18일)

The 1st Taekwondo Referee Seminar was held at the Kukkiwon.

